20190414-1241□-□□_2012528 -902□16□ 19. 4. 12. □□ 8:16 Page 1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19년 4월 14일(주일) 제1241호

지난해 고난주간 심야예배 로비에 설치된 '회개의 십자가'에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적은 종이를 못박고 있다.

#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 2019 고난주간 심야예배 '십자가의 흔적' 15~19일 오후 9시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요 19:17~18).

2019 고난주간 심야예배 '십자가의 흔적'을 내일(15일)부터 19일(금)까지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오후 9시에 드린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생명의 삶〉을 본문으로 설교한다.

2019 고난주간 심야예배는 개인기도(침묵), 십자가 묵상, 성경읽기(장광 장로, 오미희 권사), 중보기도, 말씀선포, 합심기도, 봉헌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성금요일 예배에서는 가상칠언 세리머니, 성만찬 등이 실시된다.

요일별 중보기도도 한다. 월요일 나라와 민족의 죄 회개, 화요일 나라의 지도자, 수요일 나라의 치유와 회복, 목요일 교회, 금요일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

고난주간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오후 6시 이후 모임을 삼가고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고난주간 심야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매일 한 끼 이상 나라를 위한 금식기도를 하고 금식한 금액은 헌금한다. 미디어(TV, 인터넷, 영화, 게임 등)금식도 병행한다. 교회 로비에 설치되는 '회개의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적은 종이를 못 박고 회개하는 의식도 한다. 이 기간 동안 순예배는 고난주간 심야예배 참석으로 대체한다.

지난 주일 예배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성도들에게 "고난주간 심야예배에 적극 참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CGNTV는 고난주간 심야예배 실황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다. 또한 CGNTV에서 고난주간 동안 특별 다큐멘터리 '맨 오브 갈릴리'를 15일(월)~20일(토)까지 오후 10시 30분에 방송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굿윌스토어 기증 캠페인 실시

## 재활용 가능한 깨끗한 생활용품 기증

온누리교회와 굿윌스토어가 손잡고 '굿윌스토어 기증 캠페인'을 실시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용품을 기증하고, 굿윌스토어는 기증받은 물품 판매 수익금으로 장애인 및 취약계층 직업재활과 지원고용 등을 한다.

수원과 대전은 오늘(14일)부터 21일까지, 서빙고, 양재, 평택, 강동은 다음 주일(21일)부터 28일까지, 남양주 4월 28일, 인천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참여방법은 서빙고와 양재는 교회에 설치되는 굿윌스토어 수거함에 기증품을 넣으면 된다. 대전, 남양주, 평택, 강동은 목회지원실, 수원은 교회 현관입구 지정장소, 인천은 예배장소(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종합관)로 가져오면 된다.

재사용이 가능한 깨끗한 물건을 기부할 수 있다. 의류, 잡화, 주방용품, 책, 음반, 비디오, 레저용품, 문구 및 완구, 미사용 화장품, 소형가전, 초콜릿, 과자류, 커피류, 면류 등이다. 수선이나 세탁이 필요한 의류, 특정 유니폼, 파손되거나 심하게 더러운 제품, 2008년 이전 출판된 도서, 전공서적 및 백과사전, 제조된 지 10년 이상 된 가전, 중대형 및 설치가 필요한 가전제품, 가구, 냉장 보관식품 등은 기증할 수 없다.

문의: 서빙고 02-6910-9191
양재 02-6913-9191

#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 선물하세요"

## 열린새신자예배 전도집회,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열린새신자예배에서 오는 4월 21일 '사랑 그리고 사랑'을 주제로 전도집회를 개최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전도집회에는 누구든지 초대할 수 있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영표 집사, 가수 백지영 등이 게스트로 출연하다.

60세 이상 부모초청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가 막 오른다. 5월 20일 오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고은아 권사, 가수 이무송· 노사연 부부 등이 게스트로 출연하고,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참가신청은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주일 통합데스크, 평일 목회행정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문의: 열린새신자예배
02-3215-3177
행복드림콘서트
02-3215-3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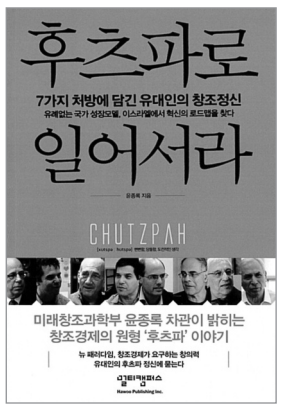
**기획_** 당신은 예의 바른 크리스천입니까? 4-5면 **인물_** 크리스천 크리에이터를 만나다 6면 **기고_** 3.1운동과 한국교회:개혁신학적 성찰 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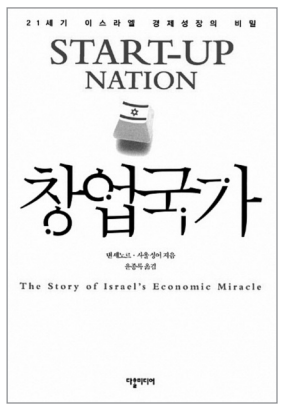
20190414-1241□-□□_2012528 -902□16□ 19. 4. 12. □□ 8:16 P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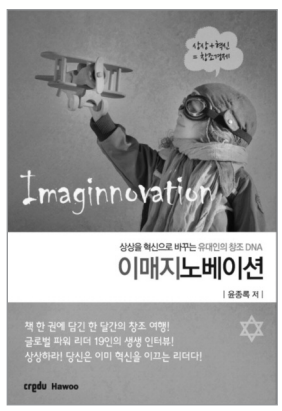


## 책 읽어주는 목사

# 후츠파로 일어서라!




〈후츠파로 일어서라〉, 〈창업국가〉, 〈이매지노베이션〉 이 세 권의 책의 저자와 역자는 윤종록 씨다. 이분은 우리나라 초대 미래창조과학부차관과 KT상임이사 부사장, 연세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우리나라 IT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분이다. 그는 2005년 이스라엘의 경제발전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후츠파 정신'에서 발견했다. 그 이후 〈창업국가〉를 번역하고, 〈호모디지쿠스로 진화하라〉, 〈후츠파로 일어서라〉, 〈이매지노베이션〉을 저술하였다.

'티쿤 올람(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고친다)'은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사고에 흐르는 사상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상상하고 연구하여 실제로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애쓰고 있다. 또 모든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타'로 열매 맺는 민족이다.

1999년 창업한 구글은 불과 20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로 발돋움 했다. 이 기적은 마흔이 넘은 한 여직원의 평범한 상상력에서 시작됐다. 요엘 마르크는 성경구절을 쉽게 찾아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성경색인학자였다. 이스라엘 연구소의 평범한 직원이었던 그녀는 간단한 상상력을 제안했고, 회사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채택한 것뿐이다. 구글은 이것을 '제안검색'이라고 명명하였고 골리앗 야후를 무너뜨렸다.

"과거로의 여행이 '기억'이라면, 미래로의 여행은 '상상'이다. 기억은 우리가 지나온 길을 반추하는 것이지만, 상상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미리 가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대통령이었던 시몬 페레스가 한 말이다. 우리에게 권하는 길은 가보지 않은 길, 바로 상상의 길이다.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 아니고 상상이다.

저자는 책 〈이매지노베이션〉에서 상상을 혁신으로 만들어야 국가와 기업에 미래가 있다고 말한다. '이매지노베이션(Imaginnovation)'은 상상력(Imagination)과 혁신(Innovation)의 합성어다. 상상은 모든 혁신의 출발선이다. 그러나 모두가 혁신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상상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그러나 실행하지 않으면 곧 사라지는 휘발성 물질이다. 상상은 만질 수 없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결과를 통해 비로소 만질 수 있게 된다.

저자의 또 다른 책 〈창업국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국가를 부로 이끌었는지를 말하고 있다. 그들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형식을 타파한 시스템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을 하며 창업을 한다. 바로 후츠파의 정신으로 이루어낸 결과다.

이제 5G시대를 맞아 다음세대의 아이들은 상상을 초월한 세계 속에서 생존해야 한다. 상상력을 통한 창조성을 가지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배경삼아 우리의 상상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후츠파 정신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이미 3,800년 동안 쌓여온 하브루타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의 상상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 동기부여를 일으켜야 한다.

후츠파 정신에서 상상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많은 사람들이 사막을 버리고 떠나는 와중에 '사막이 이스라엘을 먹여 살린다'고 주장하는 그들이야말로 도발적인 상상력의 소유자임이 틀림없다. 그들은 이미 가본 길이 아닌 미지의 길을 택한다.

후츠파는 우리말로 번역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말이다. '당돌함', '뻔뻔함' 정도의 어감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버릇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형식의 파괴, 질문의 권리, 상상력과 쉬임, 위험의 감수, 목표 지향, 끈질김, 실패로부터의 교훈 등 여러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충만한 후츠파 정신을 통해 성공한 유대인에게서 동기부여, 인내력, 감수성, 호기심, 창의력, 열린 사고, 낙관, 전문성, 겸손, 정직이라는 열 가지 요소를 찾아냈다.

우리가 다음세대에게 상상과 창조성을 주기 위해서는 성경통독과 QT시간에 하브루타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더 미룰 수 없는 급박한 시대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여야만 한다"(말 4:6). 결국 가정에서 후츠파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하브루타로 질문하고, 토론해서 자녀들의 창조성을 키워주는 것이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김정순 목사
(부천 온누리교회 차세대)

##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답: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끙끙대며 지지 말고 내게 와서 맡기고 쉼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했더니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비기독교인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면 기독교인은 미리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들이 질문할 때 의도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다. 비난하기 위한 질문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는 질문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답답한 문제로 인해 무엇이라도 붙들고 싶은 사람이 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고 두문불출한 아들이 있는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단다. 친구의 형편을 알았지만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있었기에 친구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함구했다고 한다. 친구의 갑작스런 질문에 만약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망과 원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응,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도 해. 그런데 교회에 나가면 마음에 평안을 주셔"라고 조심스럽게 대답을 했단다.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내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람에게는 확신 있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지? 나도 살면서 고비가 많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들어주셨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어."

자신의 간증과 함께 신속히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는 의문과 섭섭함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 정말 귀하다고 먼저 칭찬을 해준다. 그런데 나의 간절한 기도보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 있는 우리와 교제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면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 8:32)"라고 하면서 반드시 베스트를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 있게 전해야 한다.

청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자녀의 직장, 결혼문제로 걱정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할 말이 없다고 한다. 복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당당한 복음을 겸손한 태도로 전할 수 있다.

"어머니! 저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저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를 더 잘 들으세요. 선풍기가 전원에 꽂혀 있어야 시원한 바람을 맛보듯 하나님과 먼저 연결돼야 기도가 응답됩니다."

내가 입을 열 때 내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 하신다. 비난의 배후에 있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외침을 읽어야 한다.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전도여왕의 전도 레시피 저자〉)

20190414-1241□-□□_2012528 -902□16□ 19. 4. 12. □□ 8:16 Page 3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 솔로몬의 기도

왕상 3:4~14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본받지 말아야 할 인물을 꼽으라면 솔로몬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죄악의 도구로 바꿔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려고 이방인들과 정략결혼을 했기 때문에 민족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져 배교하게 만든 지도자입니다. 외부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려고 백성들에게 세금과 노역을 부과해서 큰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문화를 이뤄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진노를 자초했던 지도자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태도를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이 기도만큼은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 "내가 무엇을 줄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5절).

'1천 번제'란 1천 마리의 제물로 드린 번제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천 번 드리는 헌금으로 해석해서 매일매일 천 번을 헌금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잘못된 적용입니다. 1천 번제는 국가적 제사로 드려져서 횟수가 많아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1천 번의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제물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목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헌신 그 자체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라는 질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원하지 않는 고난과 슬픔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임재의 통로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응답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계 3:20).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문을 여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질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줄까?"라는 질문 앞에 깨어있지 않은 영혼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그 질문에 대답할 내용이 없다면 깨어있지 못한 영혼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은 영혼은 대답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그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내용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6~9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소원이 하나님 중심의 소원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솔로몬은 분별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 지혜를 구했는지 그의 기도 속에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윗에게 베푸신 큰 은혜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6절).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아버지 다윗의 믿음과 충성과 의로움과 정직 때문이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다윗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의 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솔로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거와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조상들의 눈물과 헌신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지 않고는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참된 겸손의 자세를 가진 것입니다.

둘째,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서 능력과 지혜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분별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7~9절을 보면 솔로몬은 "내가 아직 제 임무를 수행할 줄 모릅니다.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필요한 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라고 구했습니다.

### 겸손과 정직 그리고 목적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정직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간구를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네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가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네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네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러면 네 평생에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네가 만약 네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10~14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분별의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장수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적어도 이 기도만큼은 솔로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를 정직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더하시리라'는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구하는지 아니면 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받지 못한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신 것은 그가 구한 분별의 지혜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기뻐하셨지만 구하지 않은 것으로도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은 그 자신을 위한 재물, 장수, 원수를 향한 복수 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같은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도리어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왕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모든 직임에도 솔로몬이 구했던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무엇이 최선인지를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 세상의 헛된 이념과 잘못된 우상을 분별하는 지혜, 자신에게 들려오는 것이 자기의 음성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 세상의 명예, 재물, 부, 장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분별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13면에 계속〉

20190414-1241□-□□_2012528 -902□16□ 19. 4. 12. □□ 8:16 Page 4



# “당신은 예의 바른 크리스천입니까?”

## 예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한 겸손함과 친절
## 상대방 인격 존중하고, 차별 없이, 예의 바르게 대해야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 ‘예의를 잘 지키는 동쪽의 나라’라는 말로 중국에서 한국을 일컫는 말이다. 〈동이열전〉에서는 고대(古代) 한국을 다음 같이 소개했다.

“그 나라는 크지만 교만하지 않고 그 병사는 강하나 침략하지 않는다. 풍속이 순후하여 길 가는 사람은 길을 양보하고 먹는 자는 밥을 미루고 남녀는 따로 거처하니 가히 동방의 군자국이라 하겠다.”

그 예의바르고 순후하던 한국이 완전히 달라진 것일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의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갑질논란’이다. 매스컴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 고위층의 갑질을 꼬집고 있다. 그런데 그 갑질이 사회 고위층만의 문제일까?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갑질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언제부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대한민국에서 볼썽사나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의와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들이다. 이른바 ‘땅콩회항사건’으로 불리는 사례부터 시작해서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폭행,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횡포, 직원 폭행 및 동물학대 강요 등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백화점 주차요원을 무릎 꿇리거나 제자에게 고문을 가하고 인분을 먹인 교수도 있었다. 이쯤 되면 어이가 없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갑질은 사회 고위층과 그 가족들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직장인들도 알게 모르게 갑질을 하고 있고, 당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직장 내 갑질 사례가 무려 2만3천 건에 달한다. 폭언이나 폭행, 임금체불,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고용보험 문제 등 갑질의 모양과 행태가 참으로 다양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한 김민음 자매(가명, 34살)는 학력차별이라는 갑질을 무려 14년 동안이나 당하고 있다.

“대졸 출신 후배들이 들어오면 상사가 대놓고 저한테는 선배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으로 부르라고 지시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서번트 정신’으로 일하라고 강요하고요. 그냥 하녀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대졸 사원들이 입사하면 ‘고졸 사원 대하는 법’을 따로 교육하기도 하고요. 거짓말 같지요? 진짜에요.”

지난 8일, 대구에서는 한 세무서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횡포를 벌였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부하 직원들에게 순번을 정해 밥을 사라고 하는가 하면 금요일에는 집이 있는 서울에 올라가야 한다며 오후 3시 이후에는 모든 결재를 올리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교회와 크리스천들도 갑질논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박신실 자매(가명, 33세)는 교회 다니는 사장님의 말과 태도에 상처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마음에 안 들면 확 잘라버릴까 보다’라는 말을 수시로 해요. 사장님 기분에 따라 반응이 천차만별이라 거의 매일 눈치를 보고 있고요. 다행히 교회 다니는 분이라 주일에 등산 가자고 불러내지는 않는데, 회사에서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요. 사람 귀한 줄 모르고, 기분 따라 일처리하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게 갑질이 아니고 뭐겠어요?”

갑질논란의 더 큰 문제는 무례함을 겪은 사람이 나중에 무례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무례함을 자주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중에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인 것이다. 무례함은 자신도 모르게 바이러스처럼 전염된다.

책 〈무례함의 비용〉 저자 크리스틴 포래스는 “무례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 자신이 무례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무례한 사람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베스트셀러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의 정문정 작가 또한 비슷한 말을 했다.

“나도 무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정신적, 신체적 안락함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스스로를 견지하며 무례함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

### 하나님은 무례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절에 이르기까지 예의 바른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신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36~50절에서 시몬(바리새인)의 무례함을 꾸짖으셨다.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때 죄인인 한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은 뒤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를 본 시몬이 “만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당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라며 업신여겼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의 무례함을 호되게 꾸짖으셨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눅 7:44~46).

무례한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당했고, 죄인인 그 여인은 그가 행한 예절로 말미암아 믿음을 인정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 이후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루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장막 안에서 벌거벗는 실수를 하게 된다. 노아의 아들 함이 그런 아버지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리는 무례를 범하고 만다.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하여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얼굴을 돌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함은 무례로 인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무례한 자의 후손이 예절을 지킨 자들의 후손의 종들의 종이 되리라’는 저주였다.

무례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례가 또 있다. 출애굽한 뒤 모세의 아내가 광야에서 죽자 모세는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 이 일을 놓고 모세의 형과 누이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고 급기야 반감을 표현했다. 결국 미리암은 하나님의 징벌로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다.

하나님은 무례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아야 한다. 공경심이 있어야 하고, 남의 실수를 들어 무례하게 비방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삼상 2:3).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경외하는 방법일까?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사랑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 13:1~3).

예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한 겸손함과 친절이다.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내 몸처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눅 10:27).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한다. 예의를 행하는 대상에는 빈부귀천이 따로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의 바른 신앙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마 5:16).

20190414-1241□-□□_2012528 -902□16□ 19. 4. 12. □□ 8:16 Page 5



전문가 기고

# 크리스천의 에티켓과 매너

## 에티켓은 '도리(道理)', 매너는 '배려'

김수민 권사
(동대문중랑공동체,
홍보대행사 대표,
칼럼니스트)

흔히 '예절'을 영어로 '에티켓(Etiquette)' 또는 '매너(Manner)'라고 쓴다. 그런데 에티켓과 매너가 어떻게 다를까? 이 질문에 한 전문가가 이렇게 답했다.

"에티켓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으로써 형식적 측면이 강하고, 매너는 그 형식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방법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에티켓은 '있다, 없다'로 표현하고 매너는 '좋다, 나쁘다'로 표현하는 것 같다. 에티켓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이고, 매너는 상대방 입장에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배려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상대방 중심의 사고와 태도 가진 성숙한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악수(握手)에도 에티켓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상대방을 친근하게 끌어당길 수 있고 마음을 열게 하는 인사법이다. 악수는 19세기 황야의 무법자들이 판치던 아메리카 개척시대에 유래했다. 손에 무기가 없다는 표현으로 오른손을 잡으며 '당신과 잘 지내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한 손을 바지에 넣은 채 악수를 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다. 손을 잡는 강도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것이다. 밝은 표정으로 상대방의 손을 잡고 약 2초 정도 흔들면서 눈을 바라봐야 한다. 간혹 악수하면서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다.

여자에게 무엇인가를 양보할 때 '레이디 퍼스트'라고 말한다. 레이디 퍼스트는 기독교 정신과 중세 기사도 정신에 입각하고 있다. 서양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레이디 퍼스트 매너를 교육 받은 탓에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다. 가령 아내나 애인이 외투를 입고 벗을 때 꼭 도와주고, 식당이나 공연장에서 외투를 벗어 맡길 때나 찾을 때 남성이 그 역할을 한다. 식사 테이블에 앉을 때도 여자가 앉도록 의자를 빼준다. 드나들 때도 여성이나 노약자가 지나가도록 남자가 문을 열어주거나 잡아주는 것이 좋다. 좁은 계단을 올라갈 때는 남자가 여자보다 앞서고, 내려갈 때는 여자가 앞서는 것이 에티켓이다. 엘리베이터에서는 사람이 다 내리고 나서 타는 것이 상식이고, 남자는 여자와 어린이, 노약자 다음에 타고 내리는 것이 예의이다. 보도를 걸을 때 남자는 언제나 여자를 우측에 두는 것이 에티켓이다. 남자가 차도 쪽으로 걸어야 한다.

### 교회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범위를 좁혀 교회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을 살펴보자.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직적인 매너와 성도들과 교제하는 수평적 매너가 요구되는 곳이다.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사실 토요일부터 준비한다. 입고 갈 옷을 단정하게 다려 놓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자동차 기름도 미리 채워놓는다. 주일 아침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 토요일 밤늦게까지 TV를 시청하거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예배 안내를 하다보면 일찍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예배시작 30분이나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무표정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다. 예배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나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드린다는 개념을 잊지 말고 집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복장이 단정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다. 특히 여름에 짧은 반바지(핫팬츠)에 슬리퍼를 끌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들어오는 젊은 커플들이 종종 눈에 띈다. 해변에서나 입을 법한 짧은 바지에 어깨가 드러난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온다.

주보를 나눠주며 예배 안내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연장자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인사를 해도 받지 않거나 무시하며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 목례와 함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도는 해주는 게 성도로서의 매너이다.

예배 중에는 휴대폰을 옷이나 가방 안에 넣어두어야 하는데 설교 중에도 쉼 없이 SNS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띈다. 예배드리는 한 시간 반 동안 휴대폰을 꺼내지 않는다고 해서 지구의 종말이 오지는 않는다.

교회에는 다양한 봉사 영역이 있다. 그 중에서 주차봉사야말로 '극한 봉사'가 아닐까 싶다. 겨울이면 매서운 칼바람을 견뎌야 하고, 한여름에는 폭서에 시달린다. 요즘은 미세먼지에 노출돼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가장 큰 고통은 교회를 드나드는 성도들의 질서무시와 폭언이다. 교통신호에서 수신호가 우선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다. 매주 주일 교회 입구의 복잡한 차량정리를 하고 있는 안내자의 수신호에 절대권위를 부여해야 한다. 불만이 있어도 주차봉사자에게 화를 내거나 반말과 욕설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도이다. 어떤 교회에서 수년 동안 주차봉사를 하신 분이 "성도들이 반말을 하고, 돈을 주며 발렛파킹을 시키는 성도가 있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분도 사회에 나가면 CEO인데 교회에서 도리어 시험에 든다는 그분의 푸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예절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요즘 교회마다 식당과 카페가 잘 되어 있다. 주일에는 사람이 몰려 정신이 없다. 식사 후에 잔반을 정리하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구분해서 반납하는 것은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의 수고를 덜어준다. 식사를 받을 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판을 반납할 때는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게 기본이다. 한번은 나이 든 분이 식판을 던지며 "너 같으면 이런 걸 먹겠냐?"며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욕적인 행동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하셨다. 온갖 교만과 죄성이 묻어나는 사람의 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순모임에서도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지난 순장수련회에서 순장이라는 직분을 '극한직업'으로 패러디한 콩트를 보고 모두가 공감의 폭소를 터뜨렸다. 순모임에서 질문하는 사람이나 답하는 사람이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요약해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훈련이다. 믿지 않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참석하는 순원인 경우 시간이 길어지면 초조해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엄수하는 훈련에 모두 협조해야 한다.

'모티켓'이라는 말이 있다. 모바일(Mobile)과 에티켓(Etiquette)이 결합된 용어이다. 온라인 네트워크(SNS)를 사용하면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기본예절을 가리킨다. 한국에서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의 단체카톡방에서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단톡방에서 대화를 주고받을 때에는 불만이나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공지사항은 관리자가 맨 위로 올려 다른 대화에 밀리지 않도록 해놓아야 한다. 누군가 공지사항을 올렸을 경우에는 당분간 상관없는 내용의 글은 올리지 말고, 그 공지에 대한 답변들이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행사나 개인사진들은 묶어 보내기 기능으로 보내야 단출하다. 개인사진은 본인한테나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공해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기준을 공공질서와 투명성에 두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 어린이합창단 수십 명을 인솔해서 미주 순회공연을 간 적이 있다. 어린이들이 외국항공 기내에서 어찌나 떠들던지 책임자로 불려나가 마이크를 들고 여러 번 조용히 시킨 적이 있었다. 자녀를 한 명 정도 낳아 왕자와 공주로 키우는 젊은 엄마들은 공공질서를 해치는 자녀들을 야단치지 않는다. 이 시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시킨 예절교육의 참맛을 알 필요가 있다.

자유란 질서를 지킬 때 주어지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상대방 중심의 사고와 태도를 가진 성숙한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예절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190414-1241□-□□_2012528 -902□16□ 19. 4. 12. □□ 8:16 Page 6



# 7전8기? 99전100기!

## 다시 일어선 크리스천 크리에이터 '박위 형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7전8기 정신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만으로도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99전100기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박위 형제(SNS공동체)다. 박위 형제는 2014년 갑자기 사고를 당해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99번 넘어지면 100번 일어나는 불굴의 의지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동역자들의 중보기도의 힘으로 거짓말처럼 다시 일어섰다. 지금은 휠체어만 있으면 못가는 곳이 없다. 박위 형제가 최근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다.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오픈하면서 크리스천 크리에이터의 길을 걷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박위 형제의 유튜브 첫영상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이유'의 한 장면.

박위 형제가 특별한 이유는 사지마비를 극복한 특이한 이력 때문만은 아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신체뿐만 아니라 신앙까지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다. 그 원동력은 동역자들의 중보기도였다. 본인이 불굴의 의지로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자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이뤄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 박위 형제의 간증이다.

### 잘나가던 청년, 사지마비 판정을 받다

쾌활한 웃음, 기운 넘치는 행동과 표정, 타고난 이야기꾼 박위 형제의 첫인상이다. 낮은 턱 정도는 휠체어로 간단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정말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던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었다. 대화를 나눌수록 기분이 좋아졌다. 박위 형제에게서는 긍정에너지가 샘솟았다. 그런 그가 그토록 힘든 일을 견뎌내야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박위 형제는 인생의 황금기에 사지마비 선고를 받았다.

"2014년 제가 28살 때에요. 극심한 취업난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저는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듯이 취업에 성공했어요."

취업은 성공적이었는데 신앙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사고가 날 즈음에는 공동체 활동은 하지 않고 습관처럼 열린새신자예배만 드렸다.

"저는 모태신앙인이에요. 온누리교회는 중학교 때부터 다녔고요. 대학부와 청년부에서 공동체 생활을 잘 해왔었는데 취업 한 이후에는 예배시간이 가장 짧은 열린새신자예배를 다녔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보내는 긴 시간이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 '저는 절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 할 수 없어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걸치고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사고 당일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이었다. 술에 취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추락을 했다. 목숨을 건진 게 기적이라고 했다.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이었어요. 몸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오히려 신기했어요. 눈에 제 몸이 보이는데 느껴지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도 심각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수술을 해서 아직 마취가 안 풀렸구나'라고만 생각했어요."

진단명은 완전 사지마비였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서 목이 완전히 골절되어 쇄골 밑으로는 털 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사지마비 진단을 받자마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셔서 다시 두 발로 일어설 것이라는 믿음이 자연스레 생겼어요. 아니 확신했습니다."

병원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함께 견뎌줬다. 박위 형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수많은 친구, 성도, 목사들이 함께 했다. 손신국 목사(당시 한강공동체 담당)와 한강공동체 식구들은 1주일에 3~4번씩 찾아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박위 형제는 의사의 진단과 다르게 서서히 마비가 풀리기 시작했다. 손가락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적이었다.

"병동에 자그마한 기도실이 있었어요. 매일 저녁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과 독대했어요. 솔직히 저를 일으켜 달라는 기도만 했어요.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줘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저의 신체적 불완전함을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기도가 나를 향해 쏟아지다

퇴원한 이후에는 죽을 힘을 다해 재활에 매진했다.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있을 때부터는 매일 한강에 나가 5~10km씩 스스로 휠체어를 밀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근력운동도 끈질기게 했다. 서서히 놀랄 정도로 육체가 회복되어갔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점점 메말라갔다. 항상 "하나님 저를 일으켜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점점 지쳐갔다. 오로지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할 수 있는 대화가 줄어든 기분이었다.

"정말 곧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꿈쩍도 하지 않는 다리를 보면서 점점 답답함을 느꼈어요. '과연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진짜인가?'라고 의심하게 되었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 위력을 간과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친구가 다시 공동체 생활을 해보자고 권유했어요. 혼자 하는 신앙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순모임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박위 형제는 SNS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SNS공동체 수련회에서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온갖 치유집회를 다녀서 굳이 기도를 받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있었는데 제 친구들과 순원들이 저를 휠체어 째로 들고 목사님 앞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제 몸에 빈틈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시는데 제 얼굴이 눈물콧물범벅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버티지 못할 만큼 수많은 기도가 나를 향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요."

### 유튜브 채널 〈위라클〉 첫 영상 조회 수 9천 7백건

"재작년 여름 아웃리치를 다녀오고 나서 하나님이 병원에서 주신 비전을 구체화 시켜주셨어요. 유튜브가 떠올랐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거다 싶었어요. 다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전에는 몰랐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는 공간에 다치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소외되고 차가운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너무 많아요."

박위 형제는 사지마비 환자 중에서 재활이 매우 잘 된 케이스다. 박위 형제는 본인의 삶 자체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저는 1급 지체장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장애라는 단어가 아직도 썩 좋지 않아요. 사람들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싶지 않거든요. 장애인 인식개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없이 생각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자연스럽게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 영상에 녹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박위 형제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채널을 오픈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특별한 동역자 박진성 형제도 만났다.

"진성이도 저처럼 사지마비진단을 받은 친구에요. 손이 잘 움직이지 않지만 손가락 하나로 제 영상들을 기가 막히게 편집해줍니다. 사람들이 전문가를 고용했냐고 물어볼 정도에요."

박위 형제는 올해 초부터 유튜브 채널 〈위라클〉에 본격적으로 콘텐츠들을 업로드 했다. 첫 번째 영상은 조회 수 9천 7백건을 기록했다. 장애인, 비장애인, 크리스천, 비크리스천 모두가 박위 형제의 영상을 보면서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앞으로는 박위 형제의 일상생활을 담은 'V-log', 박위 형제와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위라클 택시' 등의 콘텐츠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할 예정이다.

"〈WERACLE〉은 제 이름 '위'와 우리를 뜻하는 영어 'WE'에다가 기적을 의미하는 'MIRACLE'을 합성한 단어에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영상을 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위라클〉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90414-1241□-□□_2012528 -902□16□ 19. 4. 12. □□ 8:16 Page 7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가정예배를 생활화하자!**

# 하나님의 시그널, 예수 그리스도

## 가정예배 양식

| | | |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
| 찬송 | 나는 예배자입니다 | 다같이 |
| 기도 | | 맡은 이 |
| 성경봉독 | 요한복음 1:10~12 | 다같이 |
| 설교 | '하나님의 시그널, 예수 그리스도' | 맡은 이 |
| 말씀과 일상 나누기 | | 다같이 |
| 기도제목 나눔과 중보기도 | | 다같이 |
| 찬송 | 내 이름 아시죠 | 다같이 |
| 주기도문 | | 다같이 |

**하나님의 시그널, 예수 그리스도**

가요를 많이 듣는 편은 아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 인터넷을 통해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을 찾아서 듣기도 한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유명한 걸그룹 '트와이스'의 노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시그널'이라는 노래인데 그 가사가 눈에 들어왔다. 내 마음의 울림이 있던 가사다.

"Sign을 보내 Signal 보내. 근데 전혀 안 통해. 눈빛을 보내 눈치를 주네. 근데 못 알아듣네. 답답해서 미치겠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정말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Sign을 보내 Signal 보내. 눈짓도 손짓도 어떤 표정도 소용이 없네. 하나도 안 통해 눈치도 코치도 전혀 없나 봐. 더 이상 어떻게 내 맘을 표현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계속해서 사랑의 사인을 보내지만 상대방이 그 사인을 눈치 채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해 답답한 마음을 가사로 표현한 내용이었다. 그 당시 굉장히 인기 있었던 노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사랑의 사인을 보내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할 때가 많다. 하나님께서 눈빛을 보내시고, 눈치를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도 답답해하신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사인을 보내신다. 사랑의 시그널을 보내신다. 그러나 눈짓으로, 손짓으로, 표정으로 보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오랫동안 고민해 오셨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로 하셨다.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사랑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서로 받아들여야 사랑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그널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시그널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능력을 얻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분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마치 육신의 아버지를 불렀을 때 응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불렀을 때 응답하신다.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신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애정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시그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금 고백해 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고 기도해 보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고, 들려질 것이다.

## 기고

# 가정예배를 드리면…

박시형 목사
(가정사역 서빙고
하가훈, 아름다운
동행 담당)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다.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통독을 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냈다. 개인적으로 가정예배는 정말 지겨운 시간이었다. 너무 졸렸고,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았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좋은 인식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가정예배를 시작하는 시점과 방법을 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중요한데 아들이 그 예배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이가 좋아할 만한 예배, 드리고 싶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내가 어릴 적 가졌던 가정예배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주일학교 예배와 선생님에게 의지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학원에도 가기 때문에 가정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는 것이 이 시대 대부분 가정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면서도 가정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한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아이는 점점 자라가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을 먹으며 자라간다. 운동을 하며 근육이 자라며 강해진다. 학교와 학원에서 지식을 쌓으며 지혜가 충만해진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 가운데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었을까?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얻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다. 해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까지 열흘이 걸리는 길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나님,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 헤롯왕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신 꿈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을 것이다.

가정예배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나눌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졌고, 현실에서 은혜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가정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정예배를 드리면 공통분모를 가지게 된다.**
**시대와 세대와 나이를 초월하는 그분과 만나고,**
**가족과의 친밀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우리 가정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 가정예배를 드린다. 바쁠 때는 화요일로 옮기기도 한다. 매주 역할을 달리한다. 어느 날은 내가 기도를 하고, 아내가 인도를 맡고, 아들이 찬양을 한다. 아이들은 역할을 주면 최선을 다한다. 찬양을 하고, 〈생명의 말씀〉과 〈예수님이 좋아요〉 본문을 세 번 읽고 말씀을 묵상한 다음 자유롭게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하나님께 마무리 기도를 하며 가정예배를 마친다. 말씀을 나누면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한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그 다음 주 예배에서는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 가정예배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다. 가정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게 된다. 시대와 세대와 나이를 초월하는 그분과 만나고, 가족과의 친밀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가정예배는 작년부터 시작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정예배를 시작하라는 강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자녀의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그러나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시간을 열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와 가정에 부어 주신다. 그 놀라운 은혜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누리기를 바란다.

CGNTV 가정예배 프로그램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매주 주일 오후 8시 30분
문의: 02-796-9800, www.cgntv.net

20190414-1241□-□□_2012528 -902□16□ 19. 4. 12. □□ 8:16 Page 8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

# “홀리스타요? 영의 아침식사지요!”

## 그 바쁜 청년들이 홀리스타에 가는 이유

“홀리스타요? 영의 아침식사지요!”
대학청년부의 도심 속 새벽기도 ‘홀리스타’가 어떤 곳이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다. 아무리 귀찮아도 건강을 위해 꼭 챙겨야 하는 아침식사와 같다고 했다. 든든하게 먹은 아침식사가 육의 건강을 책임진다면 홀리스타는 영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의미였다. 일하랴 공부하랴 바쁜 청년들이 홀리스타를 거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서 그들이 먹는 영의 아침식사 자리에 함께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광화문의 새벽을 깨우는 광화문 홀리스타 청년들.

공기마저 고요한 새벽. 한 카페에서 그 고요함을 깨우는 잔잔한 음악소리가 흘러나왔다. 찬양이었다. 찬양소리를 따라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청년들이 보였다. 대부분 잠들어 있는 이른 시간에 그 청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청년들의 표정에서 피곤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뭉클하고 든든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기우였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순서가 천국을 맛보게 했다. 청년들의 눈빛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고요하던 새벽이 청년들의 기도소리에 깨어나고 있었다.

### 세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

홀리스타는 교회가 청년들의 삶의 터전으로 찾아가는 새벽예배다. 직장이나 학교에 가야 하는 청년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까지 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접 청년들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갔다. 현재 강남, 광화문, 대학로, 분당, 사당, 서초, 신촌, 양재, 여의도 등 9곳에서 대학청년부 홀리스타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9일 방문한 광화문 홀리스타에서 눈에 띄는 자매가 있었다.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매를 보면서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그 주인공은 이은성 자매(여호수아 공동체)다. 친한 언니의 권유로 광화문 홀리스타를 찾게 됐다. 벌써 4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른 시간 일어나서 홀리스타에 참석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홀리스타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이 시간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직장, 관계, 예배 모든 것이 힘든 시간이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해결책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날 이후에도 홀리스타에 와서 제 문제를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홀리스타를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은성 자매에게 홀리스타가 특별한 이유가 또 있다. 홀리스타에 참석하면서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 하루가 눈부시게 달라졌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더니 기분부터 상쾌하더라고요. 저녁예배가 하루를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이라면 홀리스타는 하루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에요. 소소한 결정을 할 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묻게 되더라고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졌어요.”

이은성 자매의 기도도 달라졌다.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다.

“홀리스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라서 더 귀한 것 같아요. 광화문에서 집회가 자주 열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교회에서도 동일한 중보기도를 하지만 세상 속에서 드리는 중보기도가 더 뜨거운 것 같더라고요.”

### 기도가 깊어지고, 삶의 균형이 잡히고

서초 홀리스타에서 만난 명난희 자매(SNS 공동체)는 2018-19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통해 다시 홀리스타를 찾았다. 오랜만에 찾은 홀리스타지만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기도가 깊어졌다.

“명동 홀리스타가 없어지면서 한동안 새벽기도 참석을 쉬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열려 서초 홀리스타를 찾게 되었죠. 마침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가장 많이 참석한 순에게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열렸어요. 선물도 받고, 순원들에게 모범도 보일 겸 홀리스타에 다시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홀리스타에 나오는 시간이 쌓일수록 기도가 깊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기도노트를 살펴보니 기도의 깊이가 확연히 달라졌더라고요. 처음에는 저의 필요만을 구했는데,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명난희 자매의 기도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생활의 균형도 잡혔다.

“홀리스타 새벽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잠들려고 노력했어요. 늦게 자면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게 힘드니까요. 늦게 자면 체력적으로도 피곤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으면서 하게 되는 행동들은 선하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새벽기도를 가려면 일찍 자야 하니까 그런 유혹에 빠질 틈이 없어요. 또 하루를 일찍 시작하면 여유가 생겨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 우선순위도 잡히고요. 그래서 홀리스타에 참석하면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 홀리스타가 주는 또 하나의 유익

홀리스타가 주는 유익이 또 있다. 아니 무궁무진하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W공동체 청년들이 새로운 예배처소를 마련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여의도 홀리스타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임영완 형제(W공동체)가 그 은혜를 직접 체험했다.

“W공동체 예배장소를 옮기는 과정 자체가 은혜였어요. 정말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홀리스타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몸이 피곤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홀리스타를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임영완 형제는 홀리스타에 참석할수록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졌고, 삶을 더욱 성실하게 살게 되었다고 했다.

“바쁜 일상을 살면서 홀리스타에 빠지지 않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살아갈 새 힘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일주일에 1~2번 이상은 꼭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늘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에 계신 것 같아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게 돼요. 예배만 중요하게 여기고 일상에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홀리스타에 참석하면서 제가 맡은 일에 게으름 피우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청년들이 홀리스타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생활의 균형이 잡히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때문이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면 가까운 홀리스타를 찾아가면 된다.

〈홀리스타 예배 안내〉

| 장소 | 시간 | 장소 |
|---|---|---|
| 강남 | 월~금 6:30 | 강남역(2호선) 11번 출구 30m JD(YBM건물)앞 우회전, 직진 100m S2빌딩 2층 만랩커피 |
| 광화문 | 월~금 6:30 | 광화문역(5호선) 6번 출구/시청역(1,2호선) 3번 출구 폴바셋 코리아나 호텔점 |
| 대학로 | 월~금 6:40 | 혜화역(4호선) 4번 출구 대학로CGV 옆 한성대 에듀센터 3층 |
| 분당 | 월~금 6:30 | 수내역(분당선) 1번 출구 앞 20m 화동빌딩 지하 1층 핸딘 스페이스 공연장 |
| 사당 | 월~금 6:50 | 사당역(2, 4호선) 4번 출구 직진 50m 르메이메르빌딩 2층 WOW cafe |
| 서초 | 월~금 6:40 | 남부터미널(3호선) 4번 출구 산지빌딩 지하 1층 예배당 |
| 신촌 | 월~금 6:50 | 신촌역(2호선) 1번 출구 직진 50m 올리브영 옆 ‘인디톡’ |
| 양재 2부 | 월~금 6:20 |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 |
| 여의도 | 월~금 6:30 | 여의도역(9호선) 5번 출구 10분거리 정곡빌딩 4층 여의도 이룸 |

20190414-1241□-□□_2012528 -902□16□ 19. 4. 12. □□ 8:16 Page 9



3.1운동과 한국교회: 개혁신학적 성찰(V)

# 민족주의와 결합한 기독교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 샬롬나비 상임대표 /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한국 근대화의 백년 역사는 기독교와 분리될 수 없으며, 기독교 수용 자체가 구한말 애국애족적 민족주의 운동과 통합되어 있다. 당시 민족주의 애국자들은 한국 교회를 한 종교의 예배처가 아닌 민족의 교회로 여겼던 것이다. 춘원 이광수는 우리 민족이 기독교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일이 있다며 여덟 가지를 언급한 일이 있다. 기독교가 한국인에게 서양 사정을 알리는 데 공헌한 점, 도덕의 진흥에 기여한 점, 교육의 보급에 기여한 점, 여자의 지위를 향상시킨 점, 조혼(早婚)의 폐(弊)를 교정한 점, 한글(諺文)의 보급에 기여한 점, 사상의 자격(刺激)에 기여한 점, 개성의 자각에 기여한 점 등을 감사의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 교회가 일제로부터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는 애국지사들의 거점으로써 민족 사회를 향하여 헌신했던 일들은 가치가 있었으며, 비신자들 겨레까지도 감동시켰다.

교회 안에는 일제 항거와 민족 독립과 국가 사회의 도덕 증진을 지향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서재필을 중심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을사조약 반대의 전통을 이어 구국기도운동, 청년회활동, 계몽운동, 무장투쟁이 기독교인들에 의해 연이어 일어났다. 신민회(新民會)라는 비밀결사 단체에는 안창호, 윤치호, 이회영, 전덕기를 비롯한 8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황해도에서는 1908년경 김구, 최광옥, 송종호, 김홍량, 도인권, 이승길 등의 기독교계 인사들이 해서(海西)교육총회를 조직하고 일면일교의 학교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총독부의 당면과제는 이러한 반일적인 성향이 강한 기독교 세력을 제압하는 일이었다.

기독교가 민족주의와 결합한 그 예가 최근 발견된 자료가 제시하는 '애국가가 기독교 찬송가로 작사돼 보급 유통됐을 가능성' 이다. 美에모리대학 소장된 윤치호의 찬송가모음집(찬미가 15곡, 1908)에 애국가가 수록되어 있었다. 찬미가는 윤치호가 한영서원 학생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치기 위해 1908년 역술해서 펴낸 노래집으로 15곡의 찬송가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 14장에 현행 애국가가 실려 있다.

현행 애국가는 해방 후 안익태(1906~1965)의 곡을 붙인 것이다. 윤치호의 찬미가 15곡 찬송가에 애국가 수록, 현행 애국가가 작사자 윤치호의 친일 논란은 물론, 작곡자 안익태의 친일 활동 및 표절설까지 거론된 만큼 "차제에 통일 코리아를 염두에 둔 애국가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작품을 지나치게 저자와 관련시키는 것은 작품의 자율성 견해에 위배될 수 있다. 작품은 공개되어 독자들이 읽으면 그것은 저자의 소유물에서 벗어나 자체의 자율성을 형성한다. 애국가는 이미 백년 넘게 우리 민족의 정서를 형성해 온 것이다. 그대로 존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애국가가 기독교 복음주의와 애국심의 결합으로 탄생된 찬송가의 모습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된다. 안창호(1878~1938)가 애국가를 작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흥사단측도 "1907년 안창호가 귀국 후 선천 예배당에서 금식기도 후 찬미가에서 시상을 얻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라는 애국가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의 작사가 심의 당시 거론된 최병헌 정동교회 목사, 교회 음악가 김인식 등 애국가 작사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기독교 복음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은 애국가가 초기에는 찬송가로 창작되고 수용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고신대 명예교수 이상규는 3.1운동에 대해 "일제는 기독교 회유정책에 실패하자 탄압과 분열을 시도하는 제재를 가했고, 식민지배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심리적 저항이 일제히 만세운동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유와 공의 등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저항이었다. 당시 기독교인들의 일제 저항운동은 믿음 아래에서 민족과 나라를 향한 사랑을 구체적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다. 장신대 교수 임희국은 "기독교의 3.1운동 참여는 단순 가담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한 신앙적 차원이었다"며 순수성을 강조했다.

## 민족독립 운동을 위한 초교파적인 협력

장로교와 감리교 목회자들이 중심이 된 초교파적 연합운동은 한국 기독교를 하나로 연결하고 협력하도록 하여 민족 전체의 독립운동을 가능하게 했다. 3.1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로 참여한 기독교계 인사는 감리교 인사가 9명, 장로교 인사가 7명이었다. 민족 대표에 기독교인사 16명의 참여에는 이승훈의 노력이 컸다. 그가 동분서주하면서 길선주, 양전백, 오화영, 정춘수, 김병조, 유여대, 이명룡, 함태영, 이갑성, 박도희 등을 설득해서 결국 기독교 지도자 16명이 33인 중에 포함되도록 했다. 기독교측 민족 대표 16명은 감리교회측 9명 이필주, 신홍식, 최성모, 신석구, 오화영, 정춘수 목사와 김창준, 박동완, 박희도 전도사. 장로교회측 7명 길선주, 양전백, 유여대, 김병조 목사와 이명룡, 이승훈 장로와 이갑성이었다. 이들은 교파를 넘어서 민족 독립을 위한 대의(大義)에 합의하여 함께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1903~1907년에 일어난 감리교와 장로교 부흥운동의 여파로 초교파 연합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민족 독립을 위하여 협력하는 데 있어서 교파의 벽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 이러한 연합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3.1운동 당시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은 함께 민족대표로 참여했고, 각 지방에서 교파를 초월해 만세운동을 진행했다.

##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피해

전국에 산재한 지역 교회들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지역사회에 보급하는 일과 함께 독립만세 운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 역할에 따른 대가는 실로 큰 것이었다. 불에 탄 47개의 교회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곳이 바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감리교회' 다. 제암리교회 학살사건은 일본군과 경찰에 의한 만행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화성에서 만세시위 참가자와 33명 신자들이 제암리교회 예배당에 갇혀 학살되는 만행이 자행됐다. 일제 경찰들은 1919년 4월 15일 오후 제암리교회당에 교인들을 모이게 하고는 문을 폐쇄하고 불을 지른 후에 창문으로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28명이 목숨을 잃었다. 창문 밖으로 내놓은 어린 아이들을 단창으로 죽이고 불을 끄려고 오거나 남편을 구하려고 교회당에 온 부인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 이는 4월 5일 발안지역에서 발생했던 만세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제암리교회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이었다. 엄청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다시 거세게 저항했다. 교회 안수집사 이상 직분자 50%가 옥고를 치르거나 죽었고, 약 28,000명의 교인들도 옥고를 치르거나 죽었다. 기독교는 평신도들을 포함해 목사, 장로, 전도사, 교사까지도 3.1운동을 주동하고 참여함으로 일제의 주목을 받았고, 핍박과 피해도 매우 컸다. 일제 헌병대가 조사한 1919년 말까지 3.1운동 관계 피검자 종교별 상황에 따르면 종교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가장 많아 3,426명으로 비종교인까지 포함한 총 피검자 19,525명의 17.6%를 차지하고 있다. 3.1운동은 한국 기독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역사상 대표적 민족 독립운동이요, 신앙운동이었다고 평가된다.

## 당시 천주교의 정교분리 정책 반성

당시 종교계가 주도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은 천도교 15명, 개신교 16명, 불교 2명이 참여했으나 천주교는 참가하지 않았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3.1운동 백주년을 맞이하면서 2019년 2월 20일 일제강점기 천주교회의 '신자 독립운동 참여 금지' 조치 등에 대해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한국 천주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저버린 잘못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성찰하며 반성한다."

김 대주교는 3.1운동참여금지가 정교분리 정책에 기인했다고 말했다. "외국 선교사들로 이뤄진 한국 천주교 지도부는 일제의 강제 병합에 따른 민족의 고통과 아픔에도 교회를 보존하고 신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교(政教) 분리 정책을 내세워 해방을 선포해야 할 사명을 외면한 채 신자들의 독립운동 참여를 금지했다. 나중에는 신자들에게 일제의 침략 전쟁에 참여할 것과 신사 참배를 권고하기까지 했다."

당시 조선교구장 뮈텔 주교는 정교(政教)분리 정책에 따라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세례명 토마스) 의사의 마지막 고백성사와 미사 요청을 거부했으며 지시를 어긴 빌렘 신부에게는 2개월간 미사 집전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1990년대 이후 김수환 추기경은 안중근 의사에 대해 "일제 치하 교회가 안 의사 의거에 대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으며, 정진석 추기경도 안중근 의사에 관하여 "애국충절뿐 아니라 열심한 신앙인으로서도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분"으로 재평가한 바 있다.

당시 선교사들이 정교분리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지도자들은 3.1운동을 신앙운동으로 파악하고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신교 선교사들도 이를 간접적으로 참여했으나 천주교 지도자들과 천주교 선교사들은 그러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개신교 신앙은 성경에 기반을 두는 인격적 신앙의 역동성에 기인하는 데 반해서 천주교 신앙은 교황청 주도의 제도적 위계질서 종속성에 근거해 있는 데 기인한다. 당시 천주교 신자들은 교황청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는 선교사들의 가르침에 그대로 따랐으나 교회 총회보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선시하는 개신교 신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 개신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 다윗, 다니엘, 에스더 등을 애국적인 인물로 보았고 기독교 신앙과 애국 신앙을 동일시하였던 것이다.

둘째, 천주교는 교황청의 방침이 지교회에 하달되는 하향식 시스템인데 반해서 개신교는 지교회에서 총회로 올라가는 상향식 시스템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연습장이 되었고 민주주의의 실험장이 되었다. 천주교 지도자들은 교황청의 방침이 불만족스러웠으나 그대로 추종한 데 반하여 개신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선교사들은 정교분리정책으로 인하여 한국 개신교신자들이 결코 정치적 이슈에 관여하지 않도록 교육했다. 하지만 개신교 지도자들은 민족 독립에 관한 일에는 선교사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 민족이 일본 총독부에 의한 차별대우 받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과 이를 벗어버리려는 강한 독립의지를 이심전심으로 느꼈으므로 외국인인 선교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한국인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것이다(계속).

20190414-1241□-□□_2012528 -902□16□ 19. 4. 12. □□ 8:16 Page 10

의사전도집회 'Love Touch Concert'에 참석한 초청자와 전도대상자.

# "생명 살리는 의사들이 영원한 생명 살기를"

## 의사전도집회 'Love Touch Concert' 236명 참석

의사들을 위한 전도집회 'Love Touch Concert'에서 28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결신했고, 12명이 세례를 신청했다. 지난 9일 르메르디앙 서울 LL층 다빈치볼룸에서 막 오른 의사들을 위한 전도집회 'Love Touch Concert'에는 초청자와 전도대상자 236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도집회에서는 색소폰 연주자 대니정, 남성 4중창 CRUX, 가수 이무송·노사연 부부, 플루트 연주자 송솔나무가 게스트로 출연해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메시지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전했다. 이 목사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전도대상자 조주연 씨는 "바쁘게 일하다보면 의사로서의 소명을 잊을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박영한 장로는 "제자들을 전도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전도집회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봉사자 추가 모집

## 4월 19일까지 목회행정실이나 홈페이지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집회 봉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A팀(5월 14~17일) 봉사자 10명이다. 4월 19일(금)까지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이나 러브소나타 홈페이지(www.lovesonata.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비용은 95만원(항공, 호텔, 현지 체제비 일체)이다.

러브소나타 시즈오카는 5월 15~16일 시즈오카 그랜십 대홀에서 막 오른다. 봉사자들은 결신서 회수, 블레싱, 선물 패킹, 중보기도, 현지교회 방문 등을 한다. 문의: 02-749-1149

**Love Sonata 시즈오카 기·도·제·목**

- ■4월 15일(월) 러브소나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일본에 새겨지도록
- ■4월 16일(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일본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 ■4월 17일(수) 협력교회들이 러브소나타 통해 영혼 구원의 통로되도록
- ■4월 18일(목) 시즈오카 교계가 참 연합의 기쁨을 누리도록
- ■4월 19일(금) 봉사자들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 ■4월 20일(토) 출연진과 참석자들이 영적 기쁨을 누리도록
- ■4월 21일(주일) 모든 강사진에게 성령의 감동과 권세가 더하도록

#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밝은 웃음을"

## 청파노인복지센터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구립청파노인복지센터(이하 청파노인복지센터)가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청파노인복지센터 10주년 기념행사에는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 담당), 박성은 목사(온누리교회), 김형달 장로(온누리교회), 양재수 장로, 유형 장로, 김정재 의장(용산구의회), 정호옥 온누리복지재단 상임이사, 백혁 센터장(구립청파노인복지센터), 청파노인복제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 240여 명 등이 참석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 아트비전 벽화그리기 프로젝트 종료

## 1월 14일~4월 11일 '군포하나로'

온누리 아트비전이 지난 1월 14일 시작한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이하 군포하나로) 벽화그리기 프로젝트가 지난 11일 마무리됐다. 온누리 아트비전 스태프들은 이번 프로젝트에 재능을 기부했고, 군포하나로 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동참했다.

최혜성 집사(온누리 아트비전)는 "이번 벽화그리기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 예수사랑부 율동 교사 모집

예수사랑부 율동 교사를 모집한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발달장애인 청년들에게 율동을 가르쳐주고, 예수사랑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장소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예배를 드린다. 문의: 010-2984-0510

# 세라핌 합창단 단원 모집

## 오디션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CGNTV 온누리 세라핌 합창단(이하 세라핌 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이다. 오디션은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Acts29호실(선교관 카페 내)에서 열린다. 자유곡 1곡(악보 지참)을 준비하면 된다. 세라핌 합창단은 2002년 3월 창단했다. 국내 초청연주 및 해외 아웃리치, 정기연주회 등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합창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핸드벨 연주활동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문의: 010-5958-5583

##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 교적번호 | 성 명 | 공동체 | 교적번호 | 성 명 | 공동체 | 교적번호 | 성 명 | 공동체 | 교적번호 | 성 명 | 공동체 |
|---|---|---|---|---|---|---|---|---|---|---|---|
| 1134692 | 한규일 | 신용산 | 1134722 | 손정성 | 신용산 | 1134780 | 여선아 | 여호수아 | 1134819 | OYABUSAKI | 일본어예배 |
| 1134693 | 김진영 | 남양주A | 1134724 | 김민경 | Bridge33+ | 1134781 | 정하영 | 여호수아 | 1134820 | 이유현 | W |
| 1134694 | 홍석표 | 경기A | 1134725 | 이준형 | 강남B | 1134782 | 박진선 | 여호수아 | 1134821 | OGATAMAYU | 일본어예배 |
| 1134695 | 김현오 | 강남A | 1134736 | 조현숙 | 대전 북누리 | 1134783 | 유신아 | 도곡 | 1134823 | 오지현 | Point5 |
| 1134696 | 이유진 | 인천Web | 1134737 | 박석환 | 강남C | 1134784 | 주순식 | 도곡 | 1134824 | 김은영 | 서초C |
| 1134697 | 김미옥 | 양지 동누리 | 1134738 | 김은이 | 부천 화평 | 1134785 | 이세라 | 평택 | 1134825 | 김민성 | 대전 동누리 |
| 1134698 | 지태호 | 푸른누리 | 1134739 | 이광명 | 인천 소망 | 1134786 | 김바울 | 평택 | 1134827 | 김명숙 | 부천 사랑 |
| 1134699 | 정민정 | 양재 | 1134760 | 이정숙 | 특별한초대 | 1134787 | 주한별 | 평택 | 1134828 | 임수경 | 송파B |
| 1134700 | 조선희 | Gil | 1134761 | 윤성혁 | 도곡 | 1134788 | 김성진 | 평택 | 1134829 | 이현정 | J4U |
| 1134701 | 윤지윤 | Gil | 1134762 | 최희복 | 인천 소망 | 1134789 | 박인숙 | 분당A | 1134830 | 임우빈 | 이촌 |
| 1134702 | 박예빈 | Gil | 1134763 | 조아라 | 강남A | 1134790 | 백용현 | 평택 | 1134831 | 정숙자 | 인천 소망 |
| 1134703 | 이루리 | 양재 | 1134764 | 김병훈 | 송파A | 1134791 | 이준원 | 평택 | 1134832 | 이은혜 | 하늘 |
| 1134704 | 이귀용 | 강남A | 1134765 | 권경희 | 송파A | 1134792 | 장경호 | 평택 | 1134833 | 김민국 | SNS |
| 1134705 | 박종민 | 강동 말씀 | 1134766 | 임형빈 | 관악금천 | 1134793 | 김영은 | 평택 | 1134834 | 조익래 | 대전 북누리 |
| 1134706 | 조혜미 | 서초D | 1134767 | 권소영 | 서초C | 1134794 | 이수연 | 평택 | 1134835 | 김준형 | SNS |
| 1134707 | 최미애 | 성동광진 | 1134768 | 박보미 | 부천 믿음 | 1134795 | 박지니 | 평택 | 1134836 | 허은지 | SNS |
| 1134708 | 이성일 | 여의도 | 1134769 | 서정원 | S브릿지 | 1134796 | 박해리 | 평택 | 1134837 | 이슬기 | SNS |
| 1134709 | 원주희 | 신용산 | 1134770 | 지소정 | 강남B | 1134797 | 이연주A | 평택 | 1134838 | 장경진 | SNS |
| 1134710 | 류진경 | 강동 말씀 | 1134771 | 천지용 | S브릿지 | 1134798 | 장옥님 | 평택 | 1134839 | 박장호 | SNS |
| 1134711 | 전옥순 | 도곡 | 1134772 | 김예겸 | 평택 | 1134806 | 김혜정 | 인천 소망 | 1134840 | 윤예지 | SNS |
| 1134715 | 김한나 | 동대문중랑 | 1134773 | 유금주 | 도곡 | 1134807 | 배종태 | 도곡 | 1134841 | 김지유 | 경기A |
| 1134716 | 성진혁 | 강동 프레시스 | 1134774 | 박승혜 | 여호수아 | 1134808 | 김은자 | 수원 남누리 | 1134842 | 여경희 | 강남A |
| 1134717 | 장학만 | 서빙고 | 1134775 | 최지인 | 여호수아 | 1134809 | 오유리 | 허브 | | | |
| 1134718 | 김상훈 | 동작 | 1134776 | 이미성 | 여호수아 | 1134810 | 오지영 | Harmony | | | |
| 1134719 | 서용주 | 동작 | 1134777 | 이지인 | 여호수아 | 1134811 | 김진선 | 양재 | | | |
| 1134720 | 이규천 | 수원 서누리 | 1134778 | 박제민 | 여호수아 | 1134812 | 구향숙 | 양재 | | | |
| 1134721 | 이상흠 | 고양은평 | 1134779 | 차현정 | OCC | 1134813 | 김인교 | 신용산 | | | |

## 양재 4월 만남의 잔치

일시: 4월 21일 (주일) 시간: 오후 3:30 장소: 양재 드림홀
대상: 2019년 3월 3일 ~ 2019년 4월 6일까지 등록 성도

**강남A**
김영진
김현오
이귀용
이현국

**강남B**
지소정

**강남C**
김은희

김희선
문경민
박석환
양은영

**강남B**
문소리
윤정윤

**경기A**
이진숙

임진택
현혜성

**도곡**
이지선

**분당A**
김지원
박인숙
정예주

**서초A**
김준수
이지현
이효은
조은진
(780813)
조은진
(810310)

**서초B**
권영세

박성희

**서초D**
김훈회
조혜미

**송파A**
권태형
김종엽
전성복
이남정

**송파B**
김중백
서소피
임수경

**양재**
강승현
구향숙
김순정
김진선
박영민

오송이
이루리
장준옥
정민정
정창욱
황수형

**푸른누리**
간미연

20190414-1241□-□□_2012528 -902□16□ 19. 4. 12. □□ 8:17 Page 11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 김진훈 성도(S브릿지공동체)

나는 모태신앙으로 꾸준히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 내게 신앙은 늘 큰 짐 같았다. 일대일제자양육 또한 나에게는 넘어야 할 하나의 관문처럼 느껴졌다. '이것을 굳이 받아야 하나'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순장님의 적극적인 권유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마침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마음이 복잡해져 있을 때였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체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없었다. 일대일제자양육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서 머릿속에만 있던 성경지식 하나하나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셨다. 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주 한 주 열심히 성경공부에 임했다. 일대일제자양육이 너무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변했다.

양육자님과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은 열정이 내 마음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도 회개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나와 함께 해주셨다.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으면서 경험한 가장 큰 변화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말씀에 도무지 집중이 안 되었는데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됐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물음에 말씀으로 답을 주셨다.

큐티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큐티를 통해서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다. 부족한 나를 사랑으로 섬겨주신 양육자님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차세대 아웃리치 간증

## 르완다를 위하여

/ 최은미 교사(서빙고 초등2부)

지난 2월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에서 낸 집짓기 행사 광고를 보게 됐다. 그 광고가 내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대학시절 수련회 중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싶었다. 하나님께서는 20여 년 전 나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아프리카에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차세대 아웃리치팀은 교역자 2명, 교사 3명, 차세대 학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오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다. 비행 20여 시간, 대기 3시간, 육로 1시간 반을 이동하는 긴 여정이었다. 또 아프리카 르완다는 비닐 반입이 금지된 나라여서 음식과 선물을 포장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했다. 물을 함부로 먹을 수 없어서 현지에서 생수를 구입했다. 양치질과 세면도 구입한 생수로 했다.

집짓기 행사 첫날 여학생들은 공사장 근처에 있는 모난 돌을 나르며 주변을 정리했고, 남학생들은 진흙을 옮기고 그 진흙으로 벽돌 이음새를 메웠다. 둘째 날에는 주머니에 흙을 채워 날랐다. 그 흙으로 방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었다.

르완다에 있는 ECD센터(영유아교육기관)에서 3~5살 아이들이 영양죽을 먹고, 그 용기를 줄을 서서 집기통에 넣는 모습을 보았다. 그 죽 한 그릇이 아이들이 하루에 먹는 식사의 전부였다.

우리 팀은 배고픔으로 고생하는 르완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 조그만 아이들이 배고픔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면서 물통을 들고 매일 2킬로미터가 넘는 곳으로 물을 길으러 가고 있었다. 또 교과서가 한 반당 한 권밖에 없어서 수업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표정은 늘 밝았다.

르완다는 민족 간의 갈등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다. 하지만 우리가 방문했던 아델페교회와 가훈도교회의 선생님과 아이들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NGO 더멋진세상이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우물공급, 농사기술 보급, 보건교육, 보건소 건립, 영유아 교육 및 유치원 건립 등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마을 전체를 살리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르완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다.

▌부천 한사랑공동체 성도 간증

## 이 행복을 나누고 싶다

/ 양에스더 성도(가명, 부천 한사랑공동체)

나는 부천 온누리교회 한사랑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새터민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지도 벌써 6년이 되었다. 그동안 나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많았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다.

맨 처음 대한민국에 와서 제주도에 정착하고 교회를 다녔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북한에 두고 온 딸들을 데려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주셨다. 딸들이 한국에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그런데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다.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은 나날이 강퍅해지고 외로움에 지쳐 있었다. 동생의 소개로 온누리교회에 왔을 때도 진정한 믿음은 없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다 한사랑공동체 집사님에게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딸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사랑하는 딸들을 늘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천국 같은 대한민국에서 사랑하는 딸들과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나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떠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부천 온누리교회 한사랑공동체는 나에게 특별한 곳이다. 여기 오시는 새터민들은 고향에 두고 온 부모, 형제, 자녀들 때문에 날마다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도 한사랑공동체의 사랑과 섬김 덕분에 새터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고 있다. 한사랑공동체 스태프들 덕분에 매주 주일이 행복하고 즐겁다. 이 행복을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과 사랑하는 동생들과 나누고 싶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문의: 032-322-9686

▌아트비전 회원 간증

## 벽화 그리기와 변화된 아이들

/ 강리나 성도(아트비전)

작년 말 강남C공동체가 전라남도 고금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벽화작업을 했다. 교회 벽화작업을 통해서 한 성도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 벽화작업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래서 아트비전 담당 장로님께서 나에게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이하 군포하나로)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도 벽화를 그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셨다. 나는 아트비전 회원들과 함께 군포하나로에서 벽화작업을 시작했다. 벽화작업에는 아트비전 회원들뿐만 아니라 쉼터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했다.

군포하나로에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군포하나로에서 생활하고 있다. 처음에는 벽화 작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 작업을 본인들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며 말하곤 했다. 그러나 함께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금세 벽화작업에 흥미를 느꼈고, 제법 그림에 소질 있는 아이들도 있었다.

아이들은 벽화작업 내내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아트비전 회원들은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대화를 이어갔다. 그림을 그리면서 관심이 생겨 미술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한 청소년이 있었다. 그 청소년은 삶의 목적도, 꿈도 없었다. 그런데 벽화작업을 하면서 미래를 꿈꾸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어떤 색깔로 색칠할 것인지를 의논했다. 서로를 알아가고 더욱 친밀해졌다.

나는 변화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벽화작업이 지난 4월 11일 마무리됐다. 그동안 군포하나로 선생님들과 직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아이들을 빨리 이해할 수 있었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 수 있었다. 리모델링을 위해서 시작한 벽화작업이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장이 되었다. 그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20190414-1241□-□□_2012528 -902□16□ 19. 4. 12. □□ 8:17 Page 12



## 장로칼럼

# '1530장로회'의 다짐

김지현 장로
(강촌공동체)

'1530장로회'는 2015년 장립된 장로동기모임이다. 1530장로회의 '15'는 장로 장립을 받은 해 2015년을,'30'은 '온누리교회 30주년에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기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다른 의미로 '153'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져 물고기 153마리를 건졌던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자'라는 뜻이고, 끝에 있는 '0'은 '하나님의 일은 육이 아닌 하나님의 영(靈)인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zero, 0)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온누리교회 장로들이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1530장로회가 지난 3월 23일 김동언 장로님의 문화사역 공간인 '스페이스바움'에서 봄나들이문화 행사를 개최했다. 봄나들이문화 행사는 1530장로회의 대표적인 연례행사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동기 장로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린다. 평소에는 30여 명의 동기장로들이 10명씩 영성팀, 지성팀, 감성팀으로 나뉘어 모임을 진행하다가 봄, 가을이 되면 연합으로 모인다.

분주하게 생활하는 동기장로들이 봄을 맞이하여 잠시 멈춤의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필요를 느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님 안에서 자신과 서로를 축복하자는 취지였다. 돌아보면 우리의 분주한 일상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바쁘고 더 많은 사역을 더 잘 감당하고 생산적으로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기회는 갖지 못하고 종내는 더 피곤해지고 고단해졌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과주의가 어느덧 우리 안에도 깊이 파고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바쁜 아빠가 좋은 아빠일 수 없는 것처럼 바쁘고 피곤한 장로는 영적 아비로서 성도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집중했다.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내면의 회복이 임하기를 뜨겁게 간구했다. 회장인 문현구 장로님은 환영인사에서 "참석한 모든 장로들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자"고 당부했다. 이태환 장로님의 대표기도에 이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찬송가 예배시간에는 도노마리아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를 해 주셨다.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이 도노마리아 선교사님의 선창에 맞춰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송 가사 하나 하나에 장로님들의 절절한 고백이 담겨 있었다. 찬양이 끝난 후 문현구 장로님이 중보기도를 인도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부부가 손을 잡고 연애시절로 돌아간 듯 청춘의 거리인 가로수길을 걸었다. 2~3가정으로 조를 이뤄 저녁식사 교제도 가졌다. 다시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티타임을 가지며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장로들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장로가 되겠다"고 고백했다. 서로를 영적으로 지지해주는 동역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어진 사역을 주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재충전할 수 있어 참 감사했다. 1530장로회 장로들은 이번 봄나들이문화 행사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 살아갈 것을 다시 한 번 결단했다.

## 권사칼럼

# "서빙고 상담실로 오세요"

윤정순 권사
(서빙고 상담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상담실은 20년 전 고(故) 하용조 목사님께서 성도 12명에게 상담실을 맡기면서 시작됐다. 그때부터 12명의 성도들은 상담과 임상을 공부했다. 우리가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만 해도 상담이 우리 사회에 흔하지 않았고, 상담학을 가르치는 대학도 많지 않았다. 또 상담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담실에 찾아오는 것을 주저하기도 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상담을 받는다.

서빙고 상담실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 앞에 위치해 있다. 평일 오전 10시에 오픈해서 오후 5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과거에 비해 상담 요청이 많아 내담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예약하고 한두 달 기다리는 불편함도 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분이 많이 계실 줄 안다. 기다림에 주저하지 말고 상담실을 찾아왔으면 좋겠다. 상담은 전화신청과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다

상담 내용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주변의 눈치를 보며 주로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상담실에 찾아왔다. 근래에는 큰 문제를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도 많다. 또 우울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오신다. 서빙고 상담실은 그분들을 돕고 따뜻하게 맞아 준다. 보통 상담은 10회 정도 진행된다.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꽤 오랜 기간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상담이 마무리되면 상담자는 그동안 내담자와 상담했던 내용을 잊어버리려고 한다. 길에서 우연히 내담자를 만나도 아는 체 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며 관례이다. 하지만 상담을 하면서 나에게 큰 감동을 주어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 그들의 치유와 회복은 나에게 큰 도전이었고, 상담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줬다.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는 한 자매를 만났었다. 참 예쁜 자매였지만 표정이 늘 슬프고 어두웠다. 하지만 상담이 진행되면서 자매가 하루하루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상담자도, 내담자도 서로에게서 큰 힘을 얻게 됐다. 어느 날 그 자매가 "이제는 그만 와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마침내 그 자매가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자매를 상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루셨다. 그리고 회복된 자매는 결혼을 한다며 나에게 청첩장을 보냈다. 그때 그 경험은 나에게 정말 큰 은혜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는 사건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힘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오죽 답답했으면 상담실까지 찾아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그리고 상담을 받고 환한 미소를 머금고 돌아가는 내담자를 보면 행복하다.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내담자도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다. 상담자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도로 잘 버텨 나간다. 그리고 상담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상담실에 상주하고 있는 슈퍼바이저(관리자)에게 도움을 받는다.

나는 더 나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 늘 새롭게 세워지는 서빙고 상담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들은 혼자 해결하지 말고 상담실에 찾아오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문의: 02-793-2997~8

## 신앙에세이

# 고난 중에 찬양해야 할 이유

이상진 목사
(수원 온누리교회)

"그리스도인이 언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가?"라고 질문할 때 "고난을 만났을 때"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고난은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금을 불로 연단하면 불순물이 빠지고 정금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주님의 넓으신 뜻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고난을 겪는다. 그러므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혹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그렇다면 고난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그 답은 바로 믿음이다. 사도 요한은 고난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라고 소개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라는 물음은 고난을 만난 자의 뇌리에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다. 이 생각이 감정까지 영향을 주면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된다. 영적인 우울감에 빠지기도 한다. 우울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영적 침체 가운데 있게 된다. 결국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

영적 침체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또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믿음만 있어도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다"고 고백해보자.

영적 침체를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눌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이 바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단은 믿는 자들이 고난당했을 때 그 생각과 마음을 실족하게 함으로 주님과 멀어지게 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

영적 눌림과 침체는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다.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무기와 같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찬양에 담겨 있다. 사단의 속삭임에 대응할 수 있는 진리가 찬양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고 선포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찬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찬양인 이유는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보혜사 성령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복잡한 생각과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리해주신다. 복잡하고 부정적인 마음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도록 인도하신다. 성도가 고난이라는 현실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신다.

고난에 무력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찬양하라. 짧게 찬양하지 말고 30분 이상 찬양하라. 모든 영적인 묶임이 풀어질 때까지 찬양하라. 찬양할 때 목소리로만 하지 말고 온 마음과 온 영으로 하라. 반드시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모든 군대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해와 달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빛나는 모든 별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 가장 높은 하늘아, 너 하늘 위의 물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명령으로 그것들이 창조됐다"(시 148:1~5).

20190414-1241□-□□_2012528 -902□16□ 19. 4. 12. □□ 8:17 Page 13



주일강단

〈3면에 이어〉

# 솔로몬의 기도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지혜를 존경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 줄 것이다. 지혜를 붙잡아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잠 4:7~8).

많은 지식과 돈과 명예가 있어도 지혜가 없어서 스스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축복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없이 부어지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됩니다. 솔로몬이 분별의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많은 축복이 그를 망하게 했습니다.

###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언급하시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솔로몬보다 크다고 하셨을까요? 그 말씀 속에 솔로몬의 실패를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별의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장수의 복을 얻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의 실패의 근원은 죄였고, 십자가를 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신 것은 솔로몬처럼 실패하지 않는 이가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골 2:3).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는 영원한 지혜, 완전한 지혜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완전한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실패와 같지 않은 지혜입니다. 잠시 있다 떠나는 지혜가 아닙니다. 죄가 무너뜨릴 수 없는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중에 가장 지혜롭지 못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어 보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고전 1:23~24).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지혜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부인하고, 죽고, 함께 부활해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날마다 서고, 자신을 부인하고,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 동반자 | 양육자 |
|---|---|
| **서빙고** | |
| ■ 가정사역 | |
| 강순식 | 김한이 |
| 김성훈 | 김형진 |
| 양승대 | 문대선 |
| ■ 강서 | |
| 권준형 | 최진혁 |
| 변준희 | 송미자 |
| 오평준 | 박 순 |
| 황인하 | 김상규 |
| ■ 강촌 | |
| 김태훈 | 박미룡 |
| 이시혜 | 이경민 |
| ■ 고양은평 | |
| 구주환 | 신성희 |
| 김진순 | 권순옥 |
| 조성래 | 이기호 |
| 하진석 | 조영균 |
| ■ 관악금천 | |
| 박성준 | 박종순 |
| 양영실 | 송성숙 |
| 이명윤 | 이찬주 |
| ■ 광명 | |
| 마리다 | 장복순 |
| ■ 김포 | |
| 정정미 | 신용애 |
| ■ 노원 | |
| 제홍태 | 이홍석 |
| ■ 동대문중랑 | |
| 박재익 | 홍호식 |
| 이정화 | 정연경 |
| ■ 동작 | |
| 김창기 | 이한우 |
| 맹수연 | 김영숙 |
| 박일우 | 이종섭 |
| 이진희 | 박명숙 |
| 전종건 | 박영우 |
| ■ 마포 | |
| 권숙영 | 이윤미 |
| 김한식 | 정회평 |
| 노현일 | 우성암 |
| 박노훈 | 김형일 |
| 박성우 | 조석영 |
| 윤희자 | 박소연 |
| 이백행 | 최용환 |
| ■ 서대문 | |
| 권재희 | 김영규 |
| 이현정 | 심규정 |
| 최종설 | 박현갑 |
| 허미경 | 김희정 |
| ■ 서빙고 | |
| 남윤정 | 김지선 |
| 안을현 | 이경자 |
| 최윤정 | 박용은 |
| ■ 성동광진 | |
| 김현화 | 박명애 |
| 문용석 | 박진표 |
| 박현정 | 정유선 |
| 용석주 | 이병민 |
| 유재연 | 황미하 |
| 이용건 | 정규만 |
| 이청국 | 조용학 |
| 정소연 | 박미희 |
| 홍정희 | 서경주 |
| ■ 성북 | |
| 김윤정 | 장수정 |
| 김희정 | 이미희 |
| 채규만 | 이병국 |
| 최윤정 | 임미라 |
| ■ 신용산 | |
| 백정순 | 장혜령 |
| 신명숙 | 박은신 |
| ■ 양천 | |
| 유영실 | 김정옥 |
| ■ 여의도 | |
| 송미나 | 전예순 |
| ■ 영등포구로 | |
| 김남규 | 김용만 |
| 김성환 | 하 영 |
| 김수환 | 김충열 |
| 정진숙 | 박영진 |
| 조상진 | 조성호 |
| 최금선 | 이명숙 |
| 황승주 | 석성숙 |
| ■ 용산 | |
| 강정석 | 강종열 |
| 강정아 | 전미애 |
| 고여진 | 오세온 |
| 김수진 | 김지혜 |
| 김은선 | 양은진 |
| 김창봉 | 김이성 |
| 박선영 | 이선해 |
| 박현경 | 정화성 |
| 신선영 | 길은미 |
| 이승수 | 강명원 |
| ■ 이수 | |
| 남기석 | 이경민 |
| 상언규 | 이승배 |
| 왕 함 | 손현이 |
| 유혜경 | 김민자 |
| 장재은 | 유현미 |
| 조현옥 | 김미양 |
| ■ 이촌 | |
| 김미진 | 임수잔 |
| 김봉주 | 김재일 |
| ■ 일산 | |
| 강인경 | 김진아 |
| 문성균 | 오재열 |
| 박효정 | 김소영 |
| 이대성 | 박상준 |
| 이성욱 | 이근우 |
| 임지혜 | 강문숙 |
| 장경옥 | 박기영 |
| 장상훈 | 이봉수 |
| 최낙승 | 송도영 |
| ■ 중종로 | |
| 김영미 | 김남정 |
| 김영윤 | 구혜정 |
| 박규민 | 정중경 |
| 박상현 | 이인용 |
| 성정욱 | 주웅현 |
| 윤세진 | 안승립 |
| 윤정희 | 서정숙 |
| ■ 특별한초대 | |
| 김다솔 | 곽희준 |
| ■ 한강 | |
| 강기원 | 이병국 |
| 신희정 | 홍주영 |
| 이규민 | 최향숙 |
| 이봉균 | 황옥화 |
| 장혜원 | 박주현 |
| 차영욱 | 정세화 |
| 최일주 | 김혜자 |
| 한정혜 | 이은정 |
| 허오욱 | 강어수 |
| 허준영 | 박주덕 |
| ■ 공동체없음 | |
| 김점옥 | 이운상 |
| 김정희 | 김은영 |
| 노미애 | 유현미 |
| 안민경 | 김홍숙 |
| 이재준 | 강을구 |
| 이지명 | 현옥선 |
| ■ OCC | |
| 선고은 | 문경숙 |
| ■ OEM | |
| 권조나단 | 남명현 |
| ■ S브릿지 | |
| 고승찬 | 김영환 |
| 권성봉 | 노형근 |
| 김종현 | 박영규 |
| 김진훈 | 오 일 |
| 명혜진 | 김성은 |
| 안현선 | 한아름 |
| 우봉연 | 한대인 |
| 이소연 | 김민희 |
| 임재정 | 송해선 |
| 최은주 | 김지윤 |
| ■ 어린이 일대일 | |
| 김재희 | 임원교 |
| 김재아 | 임원교 |
| **양재** | |
| ■ 강남A | |
| 박가경 | 정현주 |
| 박지현 | 박지화 |
| 이병상 | 박창조 |
| 이윤정 | 심 정 |
| ■ 강남B | |
| 김명범 | 심재익 |
| 김지은 | 이진희 |
| 김태희 | 윤경옥 |
| 김형진 | 심효무 |
| 서혜정 | 박경하 |
| 우윤정 | 박애경 |
| 정형진 | 최명재 |
| ■ 강남C | |
| 고형준 | 황성훈 |
| 김봉숙 | 이희련 |
| 김진영 | 윤은희 |
| 윤현숙 | 금현정 |
| 이동헌 | 신동기 |
| 임미진 | 권정미 |
| 정단일 | 이용성 |
| 최 진 | 박애란 |
| 황진희 | 여연심 |
| ■ 강남D | |
| 박정훈 | 하상우 |
| 손형호 | 권혁은 |
| 임슬아 | 박영란 |
| ■ 경기A | |
| 김은영 | 오영신 |
| 김인식 | 정현두 |
| 박성주 | 이삼형 |
| 선명업 | 윤여빈 |
| 안철우 | 장정열 |
| 이애경 | 민경애 |
| ■ 도곡 | |
| 권영대 | 이진신 |
| 김경수 | 이기현 |
| 김봉석 | 조창기 |
| 김수아 | 유미경 |
| 박지윤 | 남병은 |
| 이수현 | 임혜진 |
| 이지예 | 윤선진 |
| 임지향 | 박정남 |
| 전옥순 | 김진희 |
| 주은열 | 조수영 |
| 황용남 | 김문갑 |
| ■ 분당A | |
| 김지원 | 심기순 |
| 손호성 | 김기선 |
| 송은진 | 강진아 |
| 송정숙 | 김정현 |
| 양수경 | 오진숙 |
| 임희정 | 이한숙 |
| 허준영 | 엄종석 |
| ■ 분당B | |
| 양주미 | 윤소영 |
| ■ 서초A | |
| 김경아 | 김 영 |
| ■ 서초B | |
| 고상기 | 박종필 |
| 김정미 | 전미애 |
| 박혜영 | 김지선 |
| 유지현 | 손근희 |
| 이동훈 | 박문기 |
| 이인희 | 조재현 |
| 임호순 | 김상철 |
| 주영진 | 이용경 |
| ■ 서초C | |
| 박경선 | 최은영 |
| 박혜숙 | 홍사옥 |
| 서연희 | 송영림 |
| 엄윤아 | 강소연 |
| 전정원 | 강상원 |
| 정성진 | 조영균 |
| 홍미영 | 김해경 |
| ■ 서초D | |
| 김민경 | 김유희 |
| 김민정 | 김정순 |
| 표현응 | 김선민 |
| 한세희 | 구인재 |
| ■ 송파A | |
| 공지혜 | 이수현 |
| 김석담 | 김인선 |
| 김효진 | 이경미 |
| 문상권 | 강승구 |
| 문소윤 | 문춘옥 |
| 이경희 | 전은아 |
| 정미선 | 노정숙 |
| 정예나 | 김주성 |
| ■ 송파B | |
| 김슬기 | 윤선희 |
| 서명하 | 신윤옥 |
| ■ 양재 | |
| 김준우 | 김영관 |
| 박기현 | 김나연 |
| 박정민 | 정은실 |
| 손아름 | 표희정 |
| 이승문 | 이종철 |
| 홍진호 | 김태열 |
| ■ 특별한초대 | |
| 손지환 | 송기선 |
| 이예스더 | 김민희 |
| ■ 푸른누리 | |
| 김동호 | 정회석 |
| 김범수 | 조만재 |
| 이다예 | 한명희 |
| 조재원 | 허 식 |
| 최영민 | 조율연 |
| 최형원 | 최원철 |
| 표은정 | 김은정 |
| 함승현 | 유민경 |
| ■ 하나 | |
| 이상진 | 안권준 |
| 정창길 | 김안강 |
| ■ Bridge33+ | |
| 김소영 | 곽영선 |
| 김소정 | 최희정 |
| 김지승 | 윤지상 |
| 김 진 | 류기선 |
| 김형균 | 고석봉 |
| 오지혜 | 권오향 |
| 조국화 | 김소헌 |
| 진애경 | 황승희 |
| 최 주 | 정영교 |
| 황지영 | 안혜성 |
| ■ Harmony | |
| 김희경 | 박지은 |
| ■ Point5 | |
| 권도윤 | 김미정 |
| 김대윤 | 구본영 |
| 김수민 | 이종아 |
| 김영은 | 성경숙 |
| 김윤진 | 박영선 |
| 김재찬 | 윤병주 |
| 김학수 | 한영우 |
| 박성훈 | 김동휘 |
| 박은혜 | 김현주 |
| 원지영 | 김희경 |
| 이다솜 | 이주희 |
| 이지나 | 강혜정 |
| 이지수 | 김지영 |
| 정성혜 | 안영진 |
| 주영혜 | 김애련 |
| **대청** | |
| ■ 길 | |
| 김지현 | 김준영 |
| 남덕조 | 정환민 |
| 최현경 | 김희연 |
| ■ 여호수아 | |
| 강보람 | 차은빛 |
| 고경신 | 김해진 |
| 김기현 | 김 경 |
| 김미소 | 박은경 |
| 김민정 | 장숙례 |
| 김민지 | 이선영 |
| 김선화 | 김주연 |
| 김소연 | 박인자 |
| 김용진 | 서성호 |
| 배재애 | 박혜경 |
| 백민재 | 손정현 |
| 송아란 | 이숙경 |
| 오로라 | 장숙례 |
| 오지은 | 전혜경 |
| 유지흔 | 최이조 |
| 이미지 | 강선희 |
| 이선경 | 오지연 |
| 이세정 | 조재은 |
| 이영범 | 임종천 |
| 이용철 | 정헌영 |
| 이유진 | 이미연 |
| 임윤경 | 김민숙 |
| 조영광 | 성시철 |
| 한승진 | 김대현 |
| 홍영은 | 안혜준 |
| 황유미 | 이춘자 |
| ■ 요셉 | |
| 백단비 | 이현철 |
| 장은별 | 김명숙 |
| ■ 하늘 | |
| 김예린 | 이은아 |
| 김진실 | 김은수 |
| 노경준 | 김종영 |
| 윤원태 | 김근철 |
| 조은선 | 임용자 |
| ■ 허브 | |
| 강석진 | 마선일 |
| 고지연 | 김미나 |
| 김다은 | 이주연 |
| 김소희 | 이현정 |
| 김예은 | 김미나 |
| 김은선 | 정경희 |
| 김하영 | 김순명 |
| 류홍석 | 이효일 |
| 박주연 | 정문선 |
| 박지원 | 조제열 |
| 배희재 | 이승윤 |
| 양우희 | 이옥상 |
| 양정윤 | 이준영 |
| 이준범 | 강호찬 |
| 이지선 | 김예나 |
| 장수진 | 박경주 |
| 정 진 | 김민숙 |
| 최서우 | 김현영 |
| 홍아인 | 김미나 |
| ■ J4U | |
| 고요한 | 곽금봉 |
| 곽경헌 | 김선영 |
| 권미리 | 조옥환 |
| 김승경 | 손덕원 |
| 류민규 | 김동환 |
| 류보미 | 정민주 |
| 송하준 | 박효성 |
| 윤동규 | 김지아 |
| 이보라 | 전혜진 |
| 이은선 | 최문경 |
| 이은지 | 조정윤 |
| ■ SNS | |
| 강주현 | 조선녀 |
| 공 휘 | 조성수 |
| 김경희 | 이나연 |
| 김민아 | 이주현 |
| 김슬기 | 한정옥 |
| 김아름 | 정은미 |
| 김요엘 | 양형식 |
| 김익태 | 강영희 |
| 문화연 | 이정금 |
| 박수희 | 하주현 |
| 송우리 | 홍정화 |
| 신아름 | 양한림 |
| 우다은 | 안미훈 |
| 원아란 | 지은경 |
| 유하영 | 최은정 |
| 유현경 | 조아라 |
| 유혜원 | 이정희 |
| 이수아 | 김슬기 |
| 이은지 | 홍유경 |
| 이화진 | 박미선 |
| 임유리 | 지성자 |
| 정재엽 | 최성원 |
| 정지민 | 신귀순 |
| 정지원 | 심상희 |
| 제영민 | 최득린 |
| 지윤경 | 서정숙 |
| 지은미 | 이용숙 |
| 지혜미 | 이은화 |
| 최수연 | 윤연옥 |
| 함수인 | 김효순 |
| 허혜영 | 김영옥 |

##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4월 14일(주일) 2부 예배

수료대상자 오전 8:30분까지 해당 캠퍼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빙고 수료대상자-서빙고 본당 우측 성가대석 앞

양재 수료대상자-양재 사랑홀

대상자: 2월 1일~3월 31일 사이에 사이에 완료보고한 성도입니다.

| | | | | |
|---|---|---|---|---|
| **서빙고** | 김영림 | 김종구 | **목사반** | 조종환 |
| ■ 강영재 장로반 | 방순영 | 김진국 | 김진규 | 조형진 |
| 김영관 | 방효두 | 남구현 | 성종선 | 진수정 |
| 박성태 | 오현희 | 박수영 | 이경애 | |
| 이주현 | 이화원 | 박혜정 | 조현옥 | ■ 김상수 목사반 |
| 조윤세 | | 윤미숙 | | 박동인 |
| 최지니 | ■ 박철웅 목사반 | 윤상진 | **양재** | 조윤예 |
| 허은혜 | 정도연 | 윤원기 | | |
| 홍준표 | | 이경숙 | ■ 김도균 목사반 | ■ 김태용 목사반 |
| 황호경 | ■ 신동식 목사반 | 이덕재 | 김순규 | 이미자 |
| | 강규원 | 이승민 | 배명희 | 정수진 |
| ■ 김홍주 목사반 | 김연주 | 이준희 | | |
| 민선혜 | 김진영 | 이현숙 | ■ 김명현 장로반 | ■ 이기진 목사반 |
| 서해원 | 박미실 | 임진세 | 강은송 | 윤석일 |
| | 박정원 | 정보람 | 박준영 | |
| ■ 김효구 장로반 | 손병현 | 정은지 | 박현규 | ■ 이진숙 권사반 |
| 김성욱 | 유광영 | 한정선 | 안정아 | 김경훈 |
| 김소영 | 윤장래 | | 오갑순 | 김금순 |
| 오수연 | 최수련 | ■ 이민욱 목사반 | 이관섭 | 이헌관 |
| | | 한만협 | 이 선 | 임동민 |
| ■ 박구병 장로반 | ■ 육동건 장로반 | | 이성수 | 조병섭 |
| 김수연 | 김달수 | ■ 이준호 목사반 | 임동연 | 한송희 |
| | 김승민 | 송주현 | 임성택 | |
| | 김영수 | ■ 최승구 | 전진규 | |
| | | | 정은자 | |

1241호 20190414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9. 4. 12. 오후 6:32 페이지 1



##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청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9:30 301호/네팔어 주일 10:3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셔틀운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3월 21일(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 남성선교합창단 단원모집**
시간: 매주 (화) 저녁 7:2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
준비: 찬송가 1곡(자유곡)
문의: 신준환 성가사(010-5304-7039)

**두란노서원 재정부 채용공고**
모집: 재정 및 세무 회계 관련 사무원
마감: 4월 19일(금)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일대일 양육자반 심화과정 Make-up2**
시간: 5월 17일, 5월 24일 8:10~10:00
신청: 문자(010-9265-1532)
문의: 02-3215-3220

**온누리선교재단 직원 채용**
모집: 서빙고 한식조리, 서빙고 전기, 양재 커피숍, 양재 기관, 양지 비전빌리지 한식조리
접수: bible81@onnuri.org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문의: 02-3215-3102
상세 모집요강은 사람인 해당 공고 참조

**CMN 마하나임팀 아웃리치 모집**
일시: 7월 21일~27일
장소: 몽골 울란바트로 아가페기독병원
모집: 소화기, 심장, 신장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간호사, 약사, 일반봉사자
문의: 김의석 팀장(010-3326-8058)

## 양 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양재 샬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송세호 팀장(010-8634-9030)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3월 21일(목) 오전 10:30
장소: 본관 B3층 JDS홀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빙**
분야: 기독교상담학, 신약학
자격: 국내외 대학 또는 신학대학원의 해당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영어와 한국어로 능숙하게 강의하실 수 있는 분
접수: 4월 29일~5월 8일 17:00까지
문의: 02-570-7381
*www.ttgu.ac.kr 참조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 부 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오전7:00/2부오전9:00/3부오전11:30/4부오후2:00/5부오후4:00(대청예배)/6부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 수 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믿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시,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시,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믿음홀
중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믿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 대 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젊은예배 오후 2시 30분 본당
대학부 오후 2시 30분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청년) 오후 2:00 본당 / 4부(저녁) 오후 7:00 본당 [다문화] 주일 11:00 / 4층 온유홀

**주중예배**
힌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 평 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화요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00 비전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10:30 본당
수요영성예배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쉘터

## 인 천
032.437.9686

※예배장소 및 시간에 대한 문의는 목회지원실(032-437-9686)로 연락바랍니다.
주일예배장소 4월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4/7, 14, 21, 28일: 송도 컨벤시아 (송도동 6-1)
파워웨이브(중고등부)예배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국제예배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셈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25/오후 1:45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사랑부 11:20, 꿈땅1부 9:00, 파워웨이브1부 9:00, 파워웨이브2부 11:20, 헤븐리키즈 오후 13: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예배 오후 2시

## 강 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사랑홀
사랑부 오전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 양 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아) / 11:00 / 2층 드림씨드홀(본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0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0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00 / 2층 아펜젤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00 / 2층 스크랜턴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1241호 20190414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9. 4. 12. 오후 6:32 페이지 2



# Onnuri
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손신국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 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 강동
  **노치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7 Tarn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동경
  **서현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동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ànghǎishì Mǐnhángqū Cáobǎolù 1243hào yǒngwèishāngwùdàshà 3lóu 388shì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신기섭
김상수 이해영 손신국 서경남
노치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일하 강지영 권영환
권용갑 권조나단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상수 김성욱 김성웅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정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렴문홍 문영재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사무엘
박성천 박세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행삼 변대섭 석승호
손정훈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동식 신원석 스티브차 안광국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우윤상 원유경 웨슬리맥커리
유수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길중 윤석원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탁
이민욱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윤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한효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전도사(전임)
길혜영 김기락 김재승 김진아
문장원 백인규 윤현규 안사무엘
이우람 이준인 임경헌 최대흥
최성규 한은선 한영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박이호

◈협동목사
곽상학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김기범 김바울 김종영 김창성
김혜경 데벤드라 라즈 랜디빼당쥴렉스 마주마누룽
민현식 바랏라살리 박씨마 박천종
서수민 신정빈 싱루아마놉 안희진
이진이 유승덕 유진아 윤치연
임선아 최일관 차제이미 크리스티안

◈전도사(파트)
강성효 고주민 권은영 권영현
김근희 김경민 김두일 김세현
김세환 김승겸 김수영 김앤드류
김은하 김은혜 김유민 김용태
김영신 김정미 김정호 김지선
김지환 김진성 김진아 김주영
김종균 김충성 김태환 김태희
김한국 김형중 김형태 나지혜
노태규 민희준 민혜영 박근명
박미애 박신광 박승홍 박영규
박은빛 박이호 박현식 방세미
빌 케 배강석 배명지 백승범
백운진 서영철 쇼바 수와르 송동주
송선애 송우항 송지은 신대종
신동욱 신하선 신현민 신현아
양주영 양진범 여지휘 연공주
오국헌 오영민 오준현 오현석
우승민 윤경선 윤상복 윤수신
윤슬기 윤지은 윤준석 윤효정
이루주 이민아 이민희 이명진
이보라 이상관 이상은 이신임
이선영 이성광 이수호 이엘렌
이용민 이원준 이은정 이진기
이현석 이향순 임광명 임송아
임지성 임정민 임혜선 장광석
장미숙 장 빈 장새힘 장윤진
장재원 전소리 정성진 정에스더
정연상 정영광 정지은 조준기
주영상 지수정 추대식 추미유키
최규종 최선재 최영빈 최정현
최종현 최휘준 하성희 허루슬란
현신원 황귀희 황연신 황유일
khagvasuren Gan-Otgon Donald
Joshua Wabwire

◈사역장로
강기석 강인지 강찬석 고광필
구재영 권도원 권영석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열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승열
김영길 김영수 김용성 김 웅
김원경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이곤 김인화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하중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창극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상송 박영태 박용국 박찬빈
배종수 백승웅 백호현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서창희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우권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종인 안태환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완영 유재천 윤성열 윤영섭
윤영오 윤지준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국주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옥연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융대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택
장양희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돈영 정병규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윤채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항진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천영무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피터웰디 하영철 하용기 한규종
한종대 한형식 함선호 허형석
홍기명 홍덕표 홍종철 황영옥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동수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의선 강철호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곽진성 권득한 권오습
권오혁 권용성 권용한 김관근
김관식 김광하 김기영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종 김명현 김명훈
김민호 김병순 김병옥 김상섭
김상인 김상집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연상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 완
김용기 김용호 김웅배 김 원
김의득 김인선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해기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상권 나 영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정진
노기홍 류기범 명영찬 문성기
문쌍찬 문영기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봉래 박석봉
박성규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종현 박지수 박치완 박태성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방찬종 배 문 배기영
백남인 백홍기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송동섭
송영범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영각
신학철 신헌승 신현종 심길섭
심상달 심희돈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양상식 양유식 양주현
양춘경 양충식 오상록 오성훈
오이식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병진 유병훈 유의준 유재홍
유 형 육동건 윤기홍 윤석우
윤영각 윤현덕 이경찬 이경호
이경훈 이관수 이광순 이광형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욱 이동희
이백용 이봉의 이상기 이상도
이상율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은일
이인용 이장로 이재경 이재광
이재규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우 이종철 이 철
이태열 이태환 이해달 이헌규
이홍선 임광순 임병수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 훈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 광 장광열
장규환 장선철 장형준 전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상기 정수업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운섭
정운오 정진하 정진호 정태경
정파종 정학영 정희원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현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청구 조희동
주재량 진종구 차준구 차준한
최도성 최득린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편무옥 하성기
한갑수 한덕종 한백진 한상규
한양희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함공식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필우 호종일
홍범식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충선 홍해남 황병원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마흥규 문태준 박동순 양원명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임대지
장옥룡 장응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차드브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임웅규 전태경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춘환
오승현 오지훈 오희경 유선애
윤은희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신영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혁재 최훈희 홍용식 현상준

◈반주자
곽병찬 김기아 김병성 김선경
김성규 김수현 김순인 김연아
김은경 김은섭 김은실 김은영
김인영 김주나 금민희 남궁진
노성희 박선희 박 숙 박영숙
박진용 방 휘 신은혜 석지혜
이혜진 안은경 안은영 안지연
양지연 양현선 우경진 유재경
유지영 윤정희 윤후명 윤현진
이강석 이나래 이예은 이예진
정경미 정다혜 정지은 조영혜
조한나 최은미 최희정 한은미
황보승 한찬미 황대준 허윤선

###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영환 김철진
김태완 박만규 박신웅 서 현
송영동 유현목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채기석 최영민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최 박재영 서재범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강일영 강일하 강찬호 금동섭
김도일 김동은 김명성 김인숙
김시연 김성종 김진우 김재형
김찬우 김태환 노경호 박대원
박수환 박주영 박종훈 방지남
배성우 백인호 변범섭 서성광
신영흠 손미경 엄영기 유동우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성영
이은택 이한규 이형근 임봉순
오정택 전상현 전홍천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의환
진영국 최대웅 최영진 최 욱
최정무 홍동욱 홍성훈 홍세반
홍정표 Bob Koo Joseph Chu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은주 김성민 김성연 김성진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지현
김진완 김창식 김현경 구혜선
마커스 문하나 박미은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향진 박현욱
배윤희 백도훈 서재욱 설산정
손주은 송민선 신기원 심형진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상수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재경
이주영 이현우 임지훈 윤성민
장성진 장세윤 장제홍 지자영
전희동 정 결 정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진영 지자영 조 단
최정수 최지연 최진숙 하보라
하청훈 코바야시 메구 기지마
에미코 핸슨오 Christine Daniel
Kim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onathan Kim Rachel Back
Sam Lee Tommie Njobvu

◈장로
고성환 권덕수 김경덕 김수호
김재동 박호택 백 학 손진성
손정래 신중수 이광철 이덕한
이문호 이상덕 이상헌 이준상
여훈필 장민용 장우진 조규배
조성민 허규회 홍관희 홍규석

◈명예장로
김용석

◈협동장로
강광일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명훈 김연수 김현중 정두호
정석환 최승호 윤한돈 윤창근
이정기 이재원 임헌식 서인택
최태영 김종수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김진용
김좌겸 남명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양숙 박우람 송희경
이지은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최정혜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 소천

**4/5(금)** 서빙고 최성민 성도 부친상 고 최승
**4/6(토)** 이촌 이미영 성도 부친상 고 이성형
**4/6(토)** 용산 고 오영애 권사
**4/6(토)** 일산 고준성 성도 부친상 고 고병우
**4/8(월)** 동대문중랑 성기준 성도 부친상 고 성용훈
**4/8(월)** 송파A 오나한 집사 빙모상 고 정화일
**4/9(화)** 강남B 고 신현길 장로
**4/9(화)** 강남D 임황순 성도 빙부상 고 박재근
**4/10(수)** 양재 조영재 성도 모친상 고 김선자
**4/10(수)**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부친상 고 임동욱
**4/11(목)** 서대문 요시하라 미오 성도 부친상 고 신인균
**4/11(목)** 분당B 김영은 집사 자매상 고 김남진


##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권찬송,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 입소, 입교생 모집**
내용: 가출 및 가정복귀가 어려운 남자청소년 쉼터 입소 및 하나로꿈학교(교육청 지정 대안학교) 입교
대상: 입소생(15~20세) / 입교생(경기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문의: 유호연 팀장(031-399-7997)

**온누리요양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찬양, 성경읽기, 전도봉사 등
문의: 이진욱 복지팀장(031-334-9090)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후원품 모집**
내용: 와상 어르신을 위한 후원
후원물품 : 물없이 쓰는 샴푸, 바디워시
문의: 송유라 복지사(02-3407-2774)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55세 이상 지역주민 무료취업 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구직자(신분증 지참 방문 접수)
주요직종: 경비원, 청소원, 요양보호사, 주차관리원, 조리원 등
문의: 박나희 사회복지사(02-796-7665)

**청파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봉사자 요청**
활동일시: 화, 수, 목 9:30~14:30(식사시간 포함)
문의: 이기엽 팀장(02-703-6011)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자원봉사자**
문의: 이영환 팀장(02-985-3609)

## 재 정

십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 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 양 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 광고

**CMN 시온팀 아웃리치 모집**
일시: 7월 6일~14일 서부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비용: 의사 50만원, 일반인 25만원(항공권 별도)
분야: 의사(특히 치과, 정형외과, 외과), 간호사, 약사, 어린이사역, 일반봉사자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김포M센터 반주자 모집**
시간: 매주일 오전 11시 캄보디아예배
장소: 김포M센터(양곡프라자) 703호
문의: 신정빈 목사(010-2204-7316)

**생명의 삶 예레미야 개관세미나**
일시: 4월 22일 오전 10시~12시
접수: www.duranno.com/seminar(선착순)
문의: 02-2078-3252

**더멋진세상 해외사업 담당자 모집**
기간: 4월 15일~28일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영어 의사소통 가능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분야: 우간다 남수단 난민지원사업 담당(KOICA 사업)
문의: 02-2271-2246
*www.abetterworld.or.kr 참조

1241호 20190414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9. 4. 12. 오후 6:32 페이지 3



CGNTV

고난주간 특집 다큐멘터리

# 맨 오브 갈릴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갈릴리 지역을 탐험하는 6일간의 성경 여행

4월 15일(월)~20일(토)
**오후 10시 30분** (총 6편)

**정기후원** [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 ARS 060-700-1660 **문의** 02-796-2243